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朝鮮日報社
昭和十二年十二月四日 (土曜日) (第三版)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七年十一月十三日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五千九百四十九號 【一】

社說

初等教育擴充計畫
質的向上도並行實施하라

一

朝鮮에 무엇이 緊急치안흔것이 잇스리만 敎育처럼 緊急且重要한 問題는 업슬것이다. 吾人은 年來로 本問題를 痛하야 機會잇슬때마다 부르지저오든 初等學校의 擴充을 主唱하여왓고 義務敎育實施를 促求하여왓다. 當局에서도 일즉부터 이問題에 着眼하고 이미 宇垣總督在任當時에 十個年計劃事業으로 初等學校倍加計畫을 樹立한點만 보드라도 朝鮮에잇서서 初等敎育機關擴充이 얼마나 緊急且重要한問題인가를 알수잇다. 特히 南總督赴任以後에는 十個年倍加計畫을 五個年으로 短縮한것이라든지 또는 이것도 不足하다하야 第二次로 八個年의 擴充計畫을 樹立하야 十三年後에는 全朝鮮學齡兒童을 全部收容할수잇도록 敎育施設을 擴充하기로 方針을 決定한것은 더말할것업시 敎育朝鮮의 劃期的事業인 同時에 現下朝鮮의 實情과 朝鮮民衆의 期待에 合致되는 一大快擧라할것이다.

二

元來 初等學校倍加計畫은 昭和十三年度부터 每年 約二千學級式을 增設하야 昭和十七年度末까지 五個年間에 現在普通學校學級數의 倍加를 目的하는것이다. 이計畫이 當局의 方針대로 順調롭게 實現될時에는 只今으로부터 五個年後에는 現在推定學齡兒童數의 約五割 卽百六十萬名을 收容할수잇게되고 다시 이에 八個年의 擴充計畫을 繼續實施하게되면 昭和二十二年까지에는 數字上推定學齡兒童의 全部를 收容하게된다. 그리고 昭和二十五年度末까지의 三年間은 人口增加에 伴하는 學齡兒童의 增加와 敎育施設의 質的向上에 對處하야 이를 補充할目的으로 附加한 期間으로 思惟된다. 前後二次에 亘한 當局의 右敎育擴充計畫은 이것이 豫定대로 進捗되면 今後十三年內에 朝鮮人學齡兒童은 全部 就學할 機會를 엇게될것임으로 그規模에잇서서는 明確히 義務敎育實施로 나아가는 準備工作이라고볼것이다.

三

當局에서는 朝鮮에 義務敎育을 實施하기 아직困難하다는理由로 民度가 나즌것을 指摘한다. 勿論 生活程度에 따라서는 設使 義務敎育令을 實施한다드래도 이를 充分實行할만한 家庭도 만흔것이 아니다. 그러나 六年制 或은八年制 義務敎育을 實施하고 잇는 先進國家에 잇서서도 國民全體가 모두 그制度를 擁護할수잇슬만한程度로 向上되여 잇는것은 아니다. 더욱이 民度向上이 敎育의 普及과 不可分的 依存關係를 가지고잇다는點을 考慮에넛는다면 義務敎育實施尙早論은 本末을 顚倒한理論上矛盾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日本內地에 四年制義務敎育을 實施한 明治三十三年 當時를 回想하면 朝鮮에 義務敎育實施는 時期尙早가 아니라 時期過遲가 아니가 思惟된다 飢者가 飮食을 要求하는것처럼 民度가 낫기때문에 敎育을 希求하는것이다. 엇든 民度云云보담도 問題는如何에 잇슬것이다.

四

現代朝鮮에는 滿六歲로부터 十四歲까지 所謂 學齡에 達한 兒童의 推定總數가 二百七十餘萬名에 達한다. 當局에서 發表한 統計에 依하면 朝鮮內에는 公私立普通學校 合計二千三百六十一校에 就學兒童總數는 七十二萬이라함으로 就學兒童數는 推定學齡兒童總數의 約二割三分밖게 안된다. 이러한實情에서 只今郞當局에 義務敎育을 實施하라는것은 現實을 沒却하는 理想論이라할것이다. 五個年計劃實施에잇서서도 明年度一年間에 增設敎員이 千名이라하며 그中에 朝鮮內師範學校卒業生이 不過三百名이라하니 이點만으로도 敎育施設擴充이 얼마나 困難한가를 推察할수잇다. 이러한 諸般事情을 考慮하야 只今當局에는 비록 義務敎育을 實施치못한다고하드라도 적어도 最短期間內에 志願兒童만은 全部收容할수잇도록 初等敎育機關을 擴充하는것이 當局의 急務이다. 그리고 나아가 擴張主義는 根本的 實施에는 쉬운것이다. 質的改善이 伴行하여야 所期의 成果를 期할수잇슬지니 四年制를 六年制로 하는것도 急務라할것이다 當局은 이點에 特히 留意하기를 要望하는바이다.

五里舖、丁店鎭과 上興埠를續續占領
海軍機南京上空制壓

【丹陽에서三日同盟特派員發】 三日朝 丹陽을 占領한 ○○部隊는 即時 句容으로 向하야 前進을 開始하엿다 同日 午前中에는 이미 丹陽西方 三粁五里舖를 占據하고 다시 午後五時三十分에는 丁店鎭을 占據하엿다

【宜興三日發同盟特派員】 溧陽으로부터 溧水에 向하야 猛進하고잇는 ○○部隊는 磨盤山脈의 南麓을 迂回하야 三日午後五時에는 上興埠를 占據하엿다 同地로부터 溧水까지는 不過二十五粁박게 안된다

海軍航空部隊機 南京上空을制壓

【上海三日發同盟】 艦隊報道部三日午後五時三十分發表 我海軍航空隊는 三日午後二時頃 敵空軍을 一擧로 殲滅하고저 精鋭를擧하야 南京을 空襲하야 大校場飛行場을 爆擊하엿는데 敵은 二日의 大空襲을 恐怖하고 形態를나타내지안어 我海軍機는 悠悠히 南京上空을 飛翔한後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上海三日發同盟】 岡本 川口 村岡各少佐가 指揮하는 海軍航空隊○○機는 三日南京을 急襲하야 午後一時半約三十分間 大校場飛行場에 ○○粁의 巨彈을 投下하엿다 當日南京上空은 我機에 制壓되고 南京市內外의 敵機는 자최를보이지안엇다 三日에 亘한 我空軍의 急襲으로 敵機의 意氣는 全然阻喪되여 我軍은 完全히 南京의 上空을制壓하엿다

伏見總長宮殿下 宮中에御參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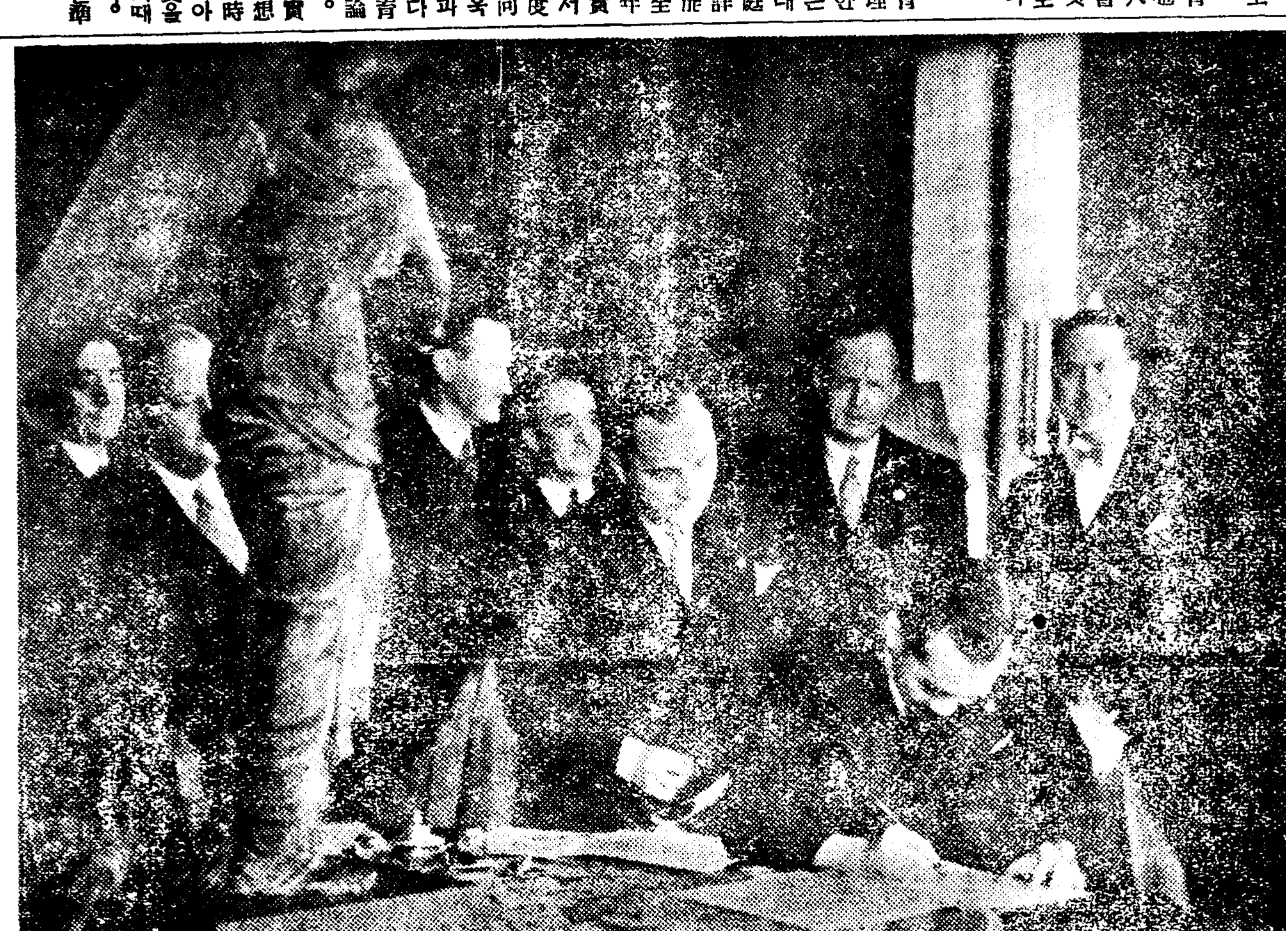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께서는 三日午後三時四十五分 宮中에 御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시고 所管事項에 關하사 御奏上하신後 同五時四分 御退出하시엿다

山西住民閻怨望

【天津三日發同盟】 치야하르、綏遠、山西戰線에서 徹底的으로擊破된 山西、綏遠兩省과 共產、中央의 各聯合軍은 太原平野의大殲滅戰에서 四散하야 三十數萬의大軍도 겨우十萬前後로 激減하고 師長、旅長等의 死傷者도 相當히 多數에 達하야 全然收拾할수업는 混亂狀態에 陷하고잇다 이를引率하는 山西方面軍總司令官閻錫山은 太原에서 逃亡한以來로 目下 司令部를 臨汾(山西南部)에 設置하고 敗殘軍의 整理와 新軍隊의 再組織에 腐心하고 잇다 그러나 各地에 四散한 敗殘兵은 거이 匪賊化하야 도라오지안코 閻錫山은겨우 當面을 糊塗하기爲하야 師長 旅長의 頭領만을 모와가지고 今後의 促進方法을 國府에 請訓하고잇는데 兵卒募集을 하기爲하야 各鄕村으로부터 强制徵發을하고잇는 模樣으로民衆의 怨嗟의聲은 더욱노파가고 最近에設立된 新自治政權을 渴望하고 閻錫山一派의 跋扈를 訴告하는 소리가 南部山西兩住民間에 瀰漫하여잇다

投降勸告文을 飛行機에서撒布

【臨邑三日發同盟】 我無言의壓迫으로 堅固한防備陣을 堅固히하고잇는 山東軍將兵에는 이미動搖의빗치 濃厚한데 三日我陸軍機는 軍宣傳部에서 印刷한『山東兵에告함』이란 降服傳單十萬枚를 敵主要陣地에撒布하엿다 右傳單은 四六倍版으로 上部에는『無效한 抵抗을中止하고 家庭에 도라가라 이것이 서로사랑하는山東全島를 救하는길이다』라는 意味의 支那文을記하고 下部에는 支那兵에 매달린는 妻子의 繪畫를그린 趣旨가잇는것인데 黃河北岸에서 散散히 潰滅된 山東軍의主力은 日本軍의 猛擊을 極度로恐怖하고잇는此際 事理에맛는 이 뜻잇한勸告文을보고 無用의 抗戰을避하고 投降하는兵卒이續出할것이라고보인다


日獨伊防共協定調印=堀田全權大使調印光景

物資調達强化次 軍需局設置論擡頭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長期戰이不可避한 情勢에잇는 支那事變의 推移에鑑하야 軍需資材及一般生產資材의 調達策을 一層强化하기爲하야 爲替資金等의 設備及歐洲戰爭當時 英、米、獨等에 잇는軍需局과如한 獨立機關을設置할것이라는 議論이擡頭하야 三日閣議에서도 吉野商相、中島鐵相、賀屋藏相、瀧企畫院總裁間에 意見이 交換되엿는데 爲替管理法에依한 輸入制限을除去한 軍需資材及一般生產資材調達을 圓滑케함에는 左와如한 恒久對策을 考慮할것이라는 意見이吉野商相에依하야 提唱되여 各閣僚도 이에同意하엿스므로 商工省에서는 다시大藏省과 陸海軍兩省과 協議한後 그具體案을立案키로 되엿다

一、應急對策으로서는 軍需資材及一般生產資材의 輸入을 一層圓滑케하기爲하야 爲替對策을 適宜講究할것

一、恒久對策으로서는 內閣又는商工省內에서 爲先 곰미티를 設置하고 事變의 進展에 따라 이를 改編하야 軍需省又는 軍需局等의 獨立機關으로하야 物資의 調達運營에當케할것

皇軍第一日의 大行進을終了

【上海三日發同盟】 新進公司爆彈事件이 發生하자 租界行進中의皇軍은 一時警戒兵을 配置하고 附近一帶의 警戒에 當하엿는데約十五分後 堂堂히 進軍을하야 二時四十五分 가덴·부릿지를건너 邦人居住地帶虹口에 至하야 皇軍第一日의 行進을마첫다

吉岡巡査負傷 全治六、七週間

【上海三日發同盟】 吉岡巡査의負傷個所는 爆彈破片에依하야 前額部盲貫 其他脚部에 五個所로 全治六、七週間豫定이다

伊太利宣敎師 日本軍에게救助

【太原三日發同盟】 共產軍에拉致된後 消息이斷絶되여 安否가念慮되던 山西省在住伊國宣敎師 도리코、파레이스라의 兩師는 皇軍에게 無事히 救出되여 去二日午後 我兵護衛下에 太原으로生還하엿다

投彈事件善後策 工部當局에一任
南京路事件漸次解決

【上海三日發同盟】 楠本大佐는吉岡領事帶同、三日午後七時半 南京路新進公司事件에 對하야 共同租界工部局警視總監 제라드氏와 會見하고 松井軍司令官代理로서南京路事件의 善後措置에 對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兩當局間에覺書를 交換하고 今後措置는 全部工部局에 一任하기로 協定하엿다 따러서 憲兵隊保護를爲하야 現場에 派遣된 警備兵은 實地檢證其他 完了를기달리여 午後八時現場으로부터 撤退를開始하엿다 일로써 一時는 그進移가 憂慮되든 同事件도 解決을보게되엿다

爆彈事件의 皇軍負傷者

【上海三日發同盟】 南京路新進公司爆彈事件에依한 皇軍의 重輕傷者는 左와如하다 (모두龜井部隊)

▲重傷 上等兵 遠藤 文(原籍千葉縣) 左大腿部盲創

▲輕傷 一等兵 川島守太(原籍千葉縣) 右下腿部盲創 一等兵 板橋松五郞(原籍千葉縣) 左大腿部盲創

附近一帶警戒

【上海三日發同盟】 南京路爆彈事件直後現場附近에는 皇軍○○名으로 非常警戒網을 칫는데 그範圍는 東西十二、三百米 南北六、七百米에達하얏스나 事態의重大性에鑑하야 더욱兵力을 增加할 豫定이다

【上海三日發同盟】 新進公司爆彈事件이發生하자 飯塚部隊는 即時 現場附近의 警戒에 當하고 高見部隊가 新進公司를 中心으로北京路、福建路、漢口路、雲南路 塚本、岡本兩大尉가 指揮하는 一部隊를 警備하고 兵隊가 治安維持에任하엿다

吉岡巡査談

【上海三日發同盟】 現場으로부터 即時福民病院에 收容된 領事館巡查吉岡隆治氏(三)는言明하되 午後一時五十分頃 新進公司內外路上을 警戒勤務中 突然群衆가운데에서 발지로부터 三尺되는地點에 爆彈一個가 落下하고 繼續하야 또一個가 大音響과함께炸裂된 白煙中에 너머지고 마럿다 때마침 龜井部隊○○部隊의 先頭가 通過한直後이다 余의負傷은大端치안타 그런데 同巡査는千葉縣出身이다

手榴彈投擲犯人 現場에서一名射殺

【上海三日發同盟至急報】 新新公司三階로부터行進中인 我皇軍에 向하야 手榴彈을投한 犯人支那人一名은 現場에서 工部局巡査에게射殺되엿다

滿洲重工會社 第一回總會開催

【新京二日發同盟】 滿洲重工業開發株式會社(假稱)의 第一回總會는來二十七日 東京支社에서 開催키로決定

一、滿洲國政府出資의件

一、重役改定의件

一、社名變更等의定款改正의件을附議할터이다 또 初代總裁인 鮎川義介氏는 七八日頃來京 副總裁理事其他人選其他에對하야滿洲國政府와 協議하게될터이다

蘇聯飛機五十臺 支那各地에輸送配附!
陸相閣議에서報告

【東京電話同盟】 杉山陸相은 三日閣議席上에서 最近支那空軍의 現狀에 對하야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最近蘇聯으로부터 支那에 輸送된 優秀한 飛行機는 合計五十臺에 達하야 南京에 二十臺 廣東에 二十臺 西安에 十臺가 各其配置되엿다는 旨를報告하엿다

張國務總理 宮廷部에參內

【新京三日發同盟】 張國務總理는 三日午後二時三十分 宮廷府에 參內 皇帝陛下에拜謁하고 伊國政府의 滿洲國承認及 코르레제駐奉天伊國領事의 初代駐滿公使就任의 아그레만要請을 上奏、御裁可를仰하고 同三時退下하엿다 코르레제總領事의 正式就任手續은 兩三日中에 完了될터인데 滿洲國政府는 伊太利公使駐劄就任과同時에 羅馬에公使를 駐在시키게되여 目下人選中이다

鐵道局長渡東

明年度豫算折衝及議會用務를爲하야 三日『아까쓰기』로渡東하엿다

콩고返還要求說 白外相正式否定

【브랏셀二日發同盟】 白耳義外相 스파-크氏는 一日上院에서 獨逸의白耳義領콩고委任統治地返還要求說을 正式으로 否定하야 左와如히言明하엿다 獨逸政府가 大戰後 獲得한委任統治地의 返還을要求하엿다는報道는 英國紙에 揭載되엿스나 獨逸官憲은 이를 否定하는同時에憤激의빗츨보이고잇다 또 此等委任統治領問題를 處理키爲하야 商議進涉中이란 說이잇스나 이亦是事實無根이다 白耳義政府는今後植民地獲得에影響이미칠것가튼植民地問題解決은斷然이를 承諾할수업다 不幸히 萬一如此한 問題가發生한 境遇에는 白耳義는 國運을賭하야 積極的으로植民地를防衛할覺悟이다

本社參觀

▲金泉郡開寧公立普通學校生徒五十九名 松本壯一郞氏引率下本社見學

首藤部隊○○機 敵大部隊를爆擊

【○○三日發同盟】 首藤部隊○○機는 二日저녁을무릅쓰고 京漢線을南下하야 午後零時五十五分 彰德南方二十五粁의地에서 李明의 ○○로부터 內黃에向하야 行軍하고잇는 敵大部隊를發見爆擊하야 殲滅的大打擊을주엇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 三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卅分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馬場內相欠席) 船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保健社會省官制案에 對하야 詳細한 說明이잇고 卽時 樞密院御諮詢奏請의 手續을 取하기로하고 吉野商相으로부터『臨時物價對策委員會를 廢止하고십다』는 說明이잇서 異議업시 이를 承認하고 또 木戶文相으로부터 東京帝國大學矢內原敎授의 辭職問題의 經過說明이 잇슨後에 杉山陸相、米內海相으로부터 北支와 上海方面의 狀況報告가잇고 다음戰時經濟統制下에잇는物資調整에 對하야 中島鐵相、賀屋藏相、吉野商相、瀧企畫院總裁의 사이에 여러가지 意見의交換이 잇고 午後零時五分에 散會하엿다

北支新政權 時機問題化

【北京三日發同盟】 河南省自治政府成立에刺戟되여 京漢線沿線의 磁縣、邯鄲、順德、大名等各地方民衆은 北支의强力한 新政權實現을熱望하고 十一月下旬부터 連日宗敎、敎育、實業各界의 代表者가 各市에參集하야 新政權樹立促進運動을 展開하고잇든바 마침내 氣運이 熟하엿스므로 三日午前十時부터 順德城內開元寺에서 各代表一千餘名參集下에 聯合大會를 開催하고 協議한結果『速히 南京政權으로부터 離脫하고 明朗한華北建設을爲하야 新政權을樹立하자』는 根本方針을 決議하고 北支各民衆에 卽時右의 通電을發하엿다 그리고 北支新政權樹立을 要望하는 氣運은 急速히 濃厚하게되엿스므로 此等民衆의要望에 依하야 北支明朗化의 新政權誕生도 時機問題로 觀測된다

國際危局에鑑해 英國陸軍大更迭

【倫敦二日發同盟】 英國陸軍省은 國際政局의 危機에鑑하야 近代戰爭科學의 進步에 對應하기爲하야 年少者를拔擢하야 參謀總長以下首腦部의 劃期的大更迭을 二日發表하엿다 更迭은 新年까지에 完了할터인데 當局은今回의大更迭은 各軍隊로하여금 中央의方針에 緊密하게하기爲함이라고言明하엿다

各首腦漢口向發

【香港三日發同盟】 當地에 滯在中인上海市長 俞鴻鈞及宋子文의 弟宋子良 海關監督唐海安、杜月笙、王曉籟、貝淞蓀、宋漢章、錢永銘等 浙江財閥의 巨頭는 三日朝 中國航空公司의 旅客機中山號로 香港經由漢口로向하엿다

莫斯科漢口間 空路連絡으로大短縮
漢口重慶間도開設

【香港三日發同盟】 香港蘇聯側情報에依하면 蘇聯軍用機의 莫斯科漢口間의 飛翔時間은 約四十時間으로 短縮된模樣이오 中央亞細亞新疆省上空은 夜間飛行을하게되엿다고한다 同方面의 飛行場設備와 까솔린補給所等도 目下着着進涉하고잇는模樣이다 그리고中國航空公司와 歐亞航空公司의本社는 上海로부터 漢口에移轉되엿는데 그後中國航空公司는 다시重慶에移轉하야 香港重慶間의直通航路를 開始하고 歐亞航空公司도 또漢口重慶間의 定期飛行을開始하게되엿다

布哇。空港建設 米陸軍新計畫

【華盛頓二日發同盟】 米國陸軍은來年度新計畫으로 布哇의 키-햄飛行場에 國際空港을建設할 計畫을세우고 目下이에 關한計畫을 作成中인데 二日에 明되엿다 右空港은 布哇眞珠灣에잇는 海軍根據地의補助空港으로할豫定이라한다

樞府顧問官 增員說擡頭

【東京電話同盟】 保健社會省新設에伴하야 樞密顧問官의 資格으로써 樞密院本會議에 參列할閣僚(保健社會相)를 增員하게되엿스므로 樞府側과 政府間에 均衡問題를 生하얏는데 樞府의一部에서는『前에拓務省新設에際하여도 顧問官의 增員問題가이러낫스나 그대로 現在까지 와섯슴으로 今回保健社會相의 實現을 機會로 顧問官의 定員을 一名又는 二名增員할것이다』는 意見이 行하고잇다 그러나 樞府側多數의 意向은 樞府制의 案件에 對하야 表決을 다투는일은 거의업고 如斯한 事態가 發生한다하더라도 顧問官의 定員은 正副議長을 除外하고 二十四名인데 一方政府側은 保健社會相을 加하고 또總理大臣을 넛는다하더라도 十四名으로 그 差十名以上임으로 아무念慮할바업고 따러서 將來는 몰라도 現在로서는 必要업다는데 一致하엿다

赤龍等을空爆 粵漢沿線도爆擊

【香港三日發同盟】 三日午前八時三十分我海軍機○臺는 廣九線深圳上空에 出現하야 赤龍其他에 爆彈을 加하고 또 粵漢沿線各驛을 爆擊하엿다

林殖銀頭取 二十日頃歸京

渡東中인 林殖銀頭取는 關係方面에 新任挨拶을하고잇는데 十日頃에 東京을出發하야 大阪에들러가지고 二十日頃까지에 歸京할豫定이다

루將軍重態

【巴里二日發同盟】 歐洲大戰의猛將 루덴돌프將軍은 以前부터 病臥中이든바 數日來로 重態에 陷하엿다 老齡이므로 念慮된다

人事·集會

▲近藤儀一氏(朝鮮總督府秘書官) 關東軍當局과要務를折衝次 新京出張中三日午後二時三十二分京城驛着歸任

獨大使調停說 支那側宣傳?

【東京電話同盟】 日支調停을爲하야 獨逸大使트라우드만氏가 蔣介石과會見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아직關係當局에는 公電이업스므로 判明되지안흐나 當局의觀測에 依하면 트라우드만駐支大使가 列國에率先하야 單獨으로 日支調整의 이니시에티브를 取하면 獨逸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行動을取하게될터이다 그러나 當局의어느 情報에 依하면 獨逸本國政府로부터는 트라우드만大使에게 이런 種類의 訓令을 渡한模樣이업다 一方트라우드만大使의 人物로보아도 單身으로 日支調停의 이니시에티브를 取하리라는 情報는勿論미들수업다 따라서 아마支那側이하는 宣傳일것이다 그러나 獨逸은對支政策에積極的意思를가지고 南京政府와不卽不離의態度를 가지고잇스므로 今後의 獨逸大使行動은 注目할必要가잇다는觀測을 내리고잇는데 트라우드만大使의 調停出馬 그自體에對하야는 그리 重視하지안는모양이다

毛澤東共產黨 遊擊隊編成着手

【香港三日發同盟】 支那共產黨領袖毛澤東은 二日 南京에드러가 蔣介石과 會見하고 揚子江沿岸에잇서서 게리라戰法實施에 對하야 協議하고 近近遊擊隊編成에 着手할模樣이다

朴名譽領事 南總督訪問

今回日本의 滿洲國의治外法權撤廢와 伊太利의 同國承認에關하야 朴滿洲國名譽總領事는 二日總督府에南總督을訪問하고 人事의 말을述하엿는데退出한後에 朴名譽總領事는 말하기를 今日伊太利의 滿洲國承認과 日本의 治外法權撤廢에 關하야 南總督에게 人事로 訪問한바 總督은 非常히 기뻐하야 여러가지말을하엿는데『伊太利의 滿洲國承認은 滿洲國이近代國家로서 實質을 備한것과 또健全한發展의 實情을 正視한結果이오 日本의 治外法權撤廢는 日滿一體 鮮滿一如의 精神의 具現化이므로 가히慶祝을 不堪하는바이다』이뜻을 貴國官民各位에게 잘傳하여주기를바란다는 傳言이잇섯다

兵力一部現場派遣

【上海三日發同盟】 軍은新進公司爆彈事件에依한 事態의惡化에鑑하야 一部兵力을 現場에派遣하기로되엿다

各警察立會下에 犯人死體檢證

【上海三日發同盟】 新進公司爆彈事件이 發生하자 憲兵隊는 即時虹口로부터 急行하야 警備에配하고 憲兵隊軍報道班과 工部局總領事各警察立會下에 犯人의死體를 開統하고 實地檢證을行하엿는데 現場은 凄慘한氣運이 瀰漫하엿다

夕刊後市況 三日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	—	—
同新	三·九	三三·五	三·九
鐘新	三九·九	二四·九	三九·○
大新	八九·六	九二·九	八九·六
東新	三九·一	二六·○	三九·○
日產	七六·九	七七·六	七六·九
同新	六六·○	六八·六	六八·○
拓新	—	三三·五	三三·五
北紙	五三·○	五三·○	五三·○
製鍊	三三·○	三三·○	三三·○
帝人新	—	六九·六	六九·六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一三九·三	一六一·三	一三九·四
大新	八九·八	九一·五	八九·五
鐘新	二三○·五	二六四·九	二三八·五
日產	七六·五	七七·三	七六·二

◆大阪短期◆

	後引	高價	低價
大新	八九·六	九一·三	八九·三
鐘新	二六·○	二六·四	二九·八
日產	七七·三	七七·七	七七·一
東新	一三九·一	一六一·四	一三九·一
日鋼	一二三·二	一三三·五	一三三·二
帝人	一三三·三	一四四·七	一三三·一
日레	八七·二	八八·六	八六·五
日魯	六六·二	六八·九	六八·一
鋼管	一○·四	一○三·○	一○一·二
日蓄	七六·七	七九·九	七六·五

◆大阪長期◆

	後引
東株	—
鐘紡	—
大株	九二·三
日穗	—
郵船	八三·○

	後引
同新	一六三·六
同新	—
同新	九二·六
日產	七六·三
同新	五三·○

◆各地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群山	—	三三·一○	三三·二五
木浦	—	三三·一○	三三·[illegible]

◆大阪棉花 後引◆ 當限 六六三○ 先限 五三二九○

◆橫濱生糸 後引◆ 當限 六九四○○ 先限 六八五○○

◆大阪人絹 後引◆ 當限 六六二○ 先限 六九七○

◆福井人絹 後引◆ 當限 六六一○ 先限 六九四○

책보들고作隊하야 登校길로劇場에

—本町署에서十五名을同行하야取調—

可嘆할學風·教育界警鐘!

영화가 동심(童心)을좀먹어들어가고잇는무서운사실은 최근본지에 수차발표된 극장구경을위한소년들의절도사건으로도 인식을새롭게하고잇는바 이지만 삼일정오경 본정서 학생계에서붓잡아온 불량학생의 떼를보면종로중등학교재학중의 자제를는가정에서는 신중한고려를 다시금할필요가잇다한다 즉 삼일정오경본정서학생계에서는 고등계형사 두명의응원을어더 관내 명치정(明治町)에잇는 영화상설관명치좌(明治座)에가서때마침학교의공파를때하고 영화를보고잇는부내 수표정(水標町)모의원상과이년생 리(李敬云)(一七)군등열한명의중등학생과 네명의초등학교아동을 체포하야다가 동서홀시실에모아노코 취조를시작하얏는데 이들중에는 책보와 점심을그냥들고 극장으로직행한 학생조차잇서 종래경기도학무과보도에 맹과 경찰이련락하야 중등학생의 극장출입을막어오든것도 지금까지는 극장의태도로는 별효과를내지못한다는것을 여실히 말하고잇는것이라고하야 동서학생게에서는 각학교당국자와 부형의주의감독을 요망하고잇다한다

文科의存續과 校名踏襲을懇願

崇實校友會代表、教授代表入京

李鍾萬氏側과會談提議

일백이십만원을던지 평양숭전재건을 선명하는동시에 그실현회에 전면중인 리종만(李鍾萬)씨측에서는 전설립자가 교명인게를 거절할경우에는『숭실』이란는 일흠을 떼어버리고 대동(大同)전문이라고 일컷고 또광산과 사범과등을 새로설치하는반면에 문과를 어떠케정미태방금 구체안을 세우고 잇는중인테 숭실전문학교 교수회와 밋교우회에서는 어디까지든지 그들의모교인 전숭교명을 그대로유지하는동시에 전통이잇는 문과도 그대로 존속시키자는것을결의하고 교수회에서는 리승덕(鍾德)씨를 교우회에서는 김취성(金聚成) 우호익(禹浩翊)량씨를 각각대표로 뽑아서 이종만씨에게 탄원케되야 그들일행은 이일저녁차로 경성에와서 삼일아침에 대동광산회사로 리종만씨를찾자 석차씨가 려행중으로서서 회담은 엇지못하고 간원서만두고 그대로 삼일저녁차로 내려갓다한다

果物、菜蔬輸送에 通風車輛製作

鐵道局의遠距離輸送策

철도국(鐵道局)에서는 지난번에 랭장차(冷藏車)보온차(保溫車)등을 새로제조하야 각처에배치하야 춘하추동(春夏秋冬)에화물수송에 요즈음 다시 통풍차(通風車)십량(十輛)을 새로제조하야 한층더화물수송(輸送)을 갈추게되엿다 이통풍차(通風車)는 생과일 야채 식목(植木)과 묘목(苗木)등의 원거리수송에 가장적당하고 효과잇는장치를 하여잇다한다

道立工業學校 實現에邁進

공업조선으로서의 전환도상에 잇스면서도 그기본적조건인 인적요소 즉 중견기술자를 양성하는기관은 전조선을통하야 겨우 경성공업학교와 진남포(鎮南浦)에잇는 두개에불과하며 더욱이 것은 기술자의속성을 목적하는 정도에그치며 일본내지에잇는각 부현의 공업학교에 비할만한기관이에서 업계방면에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잇섯는데 이문제가 엇더전 경기도(京畿道)에서개최된 산조공업부회(產調工業部會)의 중요의제로 론의되엿다

내용중실한 중등정도의 공업학교의 설립은 공업회의 한거름아래고려가고잇는 경기도로서는 급속히실현할 필요가잇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게되엿는데도당국으로서도 다년의 현안으로 임이 구체안을어든모양이라고한다 그러나 시국에의한 불요불급(不要不急)사업의 억제방침과의 조회를 엇더케하겟는가가남은문제가 되여잇다는데 중견기술자의양성은 전면적으로 요구되고잇스며 또한 전기와 가튼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한다면총독부측에서도 적당한지점을할것이로 예상되며 재원문제도 그럼저럼해결을 보게될러이라고한다 그리고 느저도 명년이월까지는 예산설립을 보게될것이며 신설생도모집에까지 이르리라고하야목하 지사 내무부장등도 조선회초회 도회공업학교설립에 부심중이라고한다

待望의 림꺽정이 遂再出現!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사진은 집필중의 벽초)

일직이 본지에『림꺽정이』(林巨正)를 실어 독자의 절대한 찬상을 바든것은 다른말할것업시 항간이나 시정에까지『림꺽정이』라는일홈이 마치 영웅의 개가와가티 전송되든것으로 증명할수잇스나 불행히 작자의 건강문제로 부득이 중단된것은 독자제씨에게 여간 유감된바가아닙니다. 그후 일년이 넘엇건마는 아직도 독자들로부터『림꺽정이』를 련재해달라는 독자의 요망은 사러지지 안햇습니다. 마침 필자 벽초 홍명희(碧初 洪命憙)씨의 건강도 회복되엿슴으로 본사에서는 다시 필자에게 청하야 금월 십일일석간부터『림꺽정이』를 련재하기로 되엿습니다. 이제 새삼스러히 이작품의 가치라든지 작자의 수법을 이야기하는것은 도리혀 번잡한일이요 다만『림꺽정이』를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독자제씨의 열광적 환영을 바드리라고 밋습니다마는 이제 오래 중단되엿든『림꺽정이』를 다시 련재하는데는 두가지 의미가잇다는것만을 말슴드려두겟습니다.

첫재는 오늘날까지도『림꺽정이』를 못이저서 하로밧비 련재하라고 독촉하시는 만천하독자제씨의 기대를 저버리지안흐려함이오 둘재는 어떠케하든지『림꺽정이』를 완성식힘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에잇서서 한개의 력사적 성경을 그려보려는것입니다. 그러면 독자여러분은 그러케 기다리시든『림꺽정이』에서 벽초 홍명희씨의 글과 삽화계의 기린아라고하는 웅초 김규택(熊超 金奎澤)씨의 그림을 아울러 읽으시면서 풍성한 정신의 량식을 어드시기를 바랍니다.

作者의말

내가『림꺽정이』를 쓰기시작한뒤 십여년간에 오래 중단하기도 두번이요 또 련재하는중에도 련재라고 말하기어렵도록 자주 빼어먹어서『림꺽정이』하루거리들렷다고 친구에게 조롱바든일까지 잇섯습니다. 물론나로서는 그때 그때 핑계꺼리가 업지안햇지만 아무리 핑계를 저픽게하더라도 구경말하면 무책임한짓이라 독자와 신문사에 대하야 죄송스럽기 짝이업섯습니다. 그래서 나는『림꺽정이』를중두무미한채 내버리라고 생각하얏습니다. 다시 쓸념도 안먹고 설혹 쓴다하더라도 신문에 다시 실어달라고 청할 염치가업는데 이번에 신문사에서 무조건으로 다시 써보라고말씀하야 그리하겟다고 대답하얏습니다. 오래 붓을노흐니라 잘 써질는지 자신이업지만 이왕 한번 대답한바에는 나의 가진정력을 다드려서 전날 무책임한짓을 다시 되푸리하지안코 일편하야 보라고합니다. 지금 휴지궤속에 처박어두엇든『림꺽정이』재료를 끄내서 정리하는데 정리가 못다는대로 독자여러분압헤 내노켓습니다.

來十一日夕刊부터連載

金熊超畫伯

紅燈街의"年末態勢" 事變時潮에不安色

—精神作興、虛禮廢止의聲勢에밀려—

忘年會대목도逐鷄望籬?

한세월만난 요리집과『카페ー』『빠ー』들이 외람되게도『신사숙녀고급사교장』이라는 모두를호기잇게 부르든것은 지난때일 중개장(改裝)으로 떠들석하든장사들이 부도수형만내고 고등판월급되러지안타든 기생、녀급이씨들의불황도 어지간히 심각하야 번창한경인후에서 출다기를하는 사변이던지고간 회류계도 당한경한 불안은나라에 별다른변화를 보내지못하얏다

롱중조(籠中鳥)백색노예(白色奴隸)등의 별명을드러가며 신정(新町)、서사헌정(西四軒町)병목정(並木町)일대 에서 연금(軟禁)생활을 하는일방 매일밤장리사(張二李四)로 뭇남자의품에 안기고잇는 창기는 십이월현재 팔백여명이나 된다고한다 열여덟이 막지난 꼿다운시절、오리는 아버지와 주개년동안도처가른 경관남편의 모진매를 참지못하야 허가어들때만은 나오리 아메서 당대의 심정(沈淸)이가되고 열녀가되여 사백원이상 몸갑시 그릇절바짓고 만다

금년은 사변관계로 갯이 철신출엇스리라는것이 일반의 추측이엿지만 특수한 생리적 요구는 사변도 긴장도 다 물리치고 갈때까지는 가는 모양으로 요리집『카페ー』『빠ー』가 경영난에 빠저도 이곳만은 태평세월이다 적극적 선전을 못하는 수동적인 취인(取引)기관이면서도 좋게는 수입감소가례년의 일할밧게 안된다는것을록렷이 보이고잇다

그도 그럴것이 이나라 이지방은 이모작(二毛作)지대로 사변은 풍년놓려 꼿피는봄에 제일기수확은 쏫낫스며 제이기수확기인녀름에는『빠ー너쓰』주머니와 고향이 눈꿀처럼 변하는 시세에 한몫보든축들이 장꾼처럼모여들어 수바게업다 월급쟁이나 우선원한다고 몰

홍등가(紅燈街)의 무장은 겨누고잇는 하밀이뿐이아니다 서투에나와왓든 카페 빠ー로리잔불로 이아말로 사변며탁을 호자 당다시피하고 망년회한구비를 대한(大旱)에감우(甘雨)가티 기두리고잇는편이지마는 이도 허례폐지(虛禮廢止)정신작흥(精神作興)의소리에 어느정도까지 에누리를당할런지 이조흥업자들의 가슴을태우게하고 잇서 정축년의 지는해도깜박그리는 홍등(紅燈)들의 불안새과 함께 하로하로 엷어저가고잇다

咸興材木庫大火

損害十一萬圓의巨額

【咸興支局電話】삼일오후한시십분경에 함흥부내 신흥정(新興町)크로재상 장윤하(張允河)의성림상회(盛林商會)제재(製材)공장에서 불이나서 때마침부는 강풍으로 불길은 맹렬히퍼저가서 건평 팔십평가량되는 그제재공장과 일백오십여평의 목재창고두채를 전소하고 삼십평되는그 사무실을 반소하엿고 또그리접한 목재점 대이상회(大二商會)의 배평되는창고한채를 전소식히고 또 함흥농업창고(咸興農業倉庫)의 오십평가량되는 정미공장을전소식히는동시에그공장안의벼와 쌀오백여석을 태워버렷다 이불은오후네시 이십분경에 은 겨우주저안젓스나 아직도여전이 타오르고잇는중이다 손해는 모도가 약십일만원이나되여 함흥에서 금년들어 처음가는큰소동을 이르키엇다

鐵原邑에火災

二棟이全半燒

【鐵原】이일오후두시반경에 철원읍본정리이백이번지 오하영(吳夏泳)의집에들어잇는 배사성(裵四成)의집에서 불이일어나서 집한채를다태우고 이여서이웃집에까지 불이연소하기시작할지음에 소방수와경찰서원들의 맹렬한활동으로 오후네시반경에 겨우진화되엿는데 조사한바에 의하면 손해는 약오백원가량이며 원인은 배사성의처가 저녁밥을짓다가 불을그대로두고 도야지죽을주러간사이에 부엌으로부터 붓기시작하야 그가티되엿다고한다

第11回 青年圈籠球聯盟戰 第三日

激戰끄테스俱軍 타이거軍을擊破

高麗、씽거兩軍도快捷

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의 第十一回青年圈籠球聯盟戰 第三日의 試合은 白燕對高麗、佛專對씽거、타이거對스필타等의 三試合은 三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青年會 室內「코ー트」에서 盛大擧行한바 高麗軍이 白燕軍을、씽거軍이 佛專軍을 各勝하엿스며 스필타軍은 同點鬪爭 數次의 延長戰끄테 타이거軍을 물리처 快勝하엿다 그리고 今四日午後七時二十分에는 激戰에 激戰을 거듭할 延專對普專의 第二回戰이 열릴터이다

高麗84 (46 38 / 15 24) 39白燕

【第一次戰】二部의 白燕對高麗戰은 同午後六時四十分부터 田■■審判下에 開始

反	後	前	【白燕】		【高麗】	前	後	反
2	0	0	孫敬俊	F	尹正蓮	5	6	0
					林正淳	0	2	0
					尹相炫	12	23	0
0	6	16	洪文吉		權重燮	0	0	1
0	7	8	張東旭	C	劉仁濟	10	0	0
					金在春	0	8	0
3	2	0	丁相九	G	[illegible]	4	0	1
0	0	0	[illegible]		曹東燮	7	2	2
0	0	0	金日培					
5	15	24				28	46	4

씽거41 (25 16 / 27 7) 34佛專

【第二次戰】二部의 佛專對씽거戰은 同午後七時三十分부터 田■■、李惠漢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初頭의 佛專軍의 快調로 前半戰에十大對七로 씽거軍에게『리ー드』를 當하다음 後半戰에 드러가 野投正確으로 二十七對二十五로 優勢를 보이엿스나 前半戰에惜敗로 씽거軍이 四十一對三十四로 大勝하엿다

反	後	前	【씽거】		【佛專】	前	後	反
1	0	2	張世永	F	[illegible]	3	2	4
					[illegible]	0	2	0
1	10	8	林水洪		[illegible]	0	1	0
4	11	2	[illegible]	C	[illegible]	0	9	2
0	0	0	[illegible]					
1	4	0	李世兢	G	金■■	0	3	4
1	0	4	金■■		許■	4	10	1
8	25	16				7	27	11

스俱39 (17 22 / 16 16) 32타俱

【第三次戰】二部의 스필타對타이거戰은 同午後八時二十五分부터 金■■、李惠漢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前半戰에 四對四 大對大으로 同點鬪爭을거듭하다가 五分에는 十大對六의 大差로 스필타軍이 得勢하더니 九分에는 十大對十二로 타이거軍의 追及이잇서 兩軍一進一退의 接戰을演하다가 二十二對十大으로 스필타軍이 타이거軍을 壓倒하엿다 後半戰에드러가 四分에 二十大對二十大으로 同點되여 스필타軍에게 無限한 氣色이며 를드니 五分에는 三十對二十八로 타이거軍이『리ー드』한後大分에도다시 三十對三十으로同點 十一分에는 三十四對三十二로 스필타軍이 優勢하게보이드니 十四分에는 三十大對三十二로『스코어』는 延長戰가 생겨 結局三十九對三十二로 스필타軍이 快勝

反	後	前	【스필타】		【타이거】	前	後	反
0	0	2	金顯田	G	全■■	6	0	0
					李■浩	0	2	1
					■日來	2	4	1
1	5	12	金容武		閔■基	0	0	0
0	2	0	金比泳	C	陳永得	4	4	0
1	2	0	宋基宇					
0	8	4	安而柱	F	李■■	2	4	0
0	0	4	李文■		金■■	2	2	0
2	17	22				16	16	2

青年籠球리그第三日現在

部	順位	팀	比率
【第一部】	1	延專	1·000
	2	普專	0·000
【第二部】	1	高麗	1·000
	1	스俱	1·000
	1	타이거	0·667
	2	白燕	0·000
	2	씽거	0·333
	2	佛專	0·000

早大籠球渡比로 延、普專落望

比律賓體協의 招聘을 바더 早大의籠球、陸上、水上等三部選手가 來十七日에 渡比하기로되엿는데 一月五日부터 열릴 全日本綜合籠球大會에는 延專、普專이 一位의 目標로한 早大가出場지안케될터이므로 一般의 期待에버서지게되엿다

米國遠征中의 玄海男無勝負

【로스안젤스卅日發同盟】米國遠征中에잇는拳鬪選手 玄海男君(一三○封度)은 卅日當地에서 墨西哥의 支那選手 馬剛初(一三○封度)와十回戰을行한結果 兩君善戰 無勝負로 마치엇다

무데夫人푸로轉向

【紐育聯盟國】女流庭球界의 第一人者『헤렌·무ー데ー』夫人은從來부터 푸로轉向을 傳하고 잇든바 最近에이르러 다시 푸로轉向問題가 再燃되여 이미契約을 마치고 今冬米國各地에巡業을 떠나단다는 所聞이잇스나 무ー데ー夫人은 아직契約에는 署名치안햇다고 否認하고잇는中이라한다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第十一回 青年圈籠球聯盟戰第四日 佛專對스필타(午後六時半) 延專對普專(午後七時二十分)以上鍾路青年會室內「코ー트」(鍾路)

▲卓球=第十八回全朝鮮卓球大會第一日 女子部(午後一時) 一般部(午後三時)以上來青館

牙山地方初雪

【牙山】충남아산지방은 금추이래로 일기가 온화하여 무궁화(花)가 만발하고 꽃까지 피어잇섯든바 지난일일새벽부터 일기가 갑작이 추워지기시작하여 초설(初雪)이 일척이상이 나리여 천지가 만리에 백화가 만발한것은세계를 일우엇다고한다

局鐵의놉흔코도 滿鐵에는遙遙不及

貨賃과客賃이滿鐵、省鐵、臺鐵의下位

그러나! 黑字景氣로叩腹

철도국에서 소화십일년도의영업성적을 조사한바를 보면 하로 한키로평균으로 승차인원은 조선국유철도에는 일천팔백오인이며 만철(滿鐵)에는 삼천사백이십일인이고 철도성선에는 사만이천인이며 대만(臺灣)국유철도에는 이천칠인인데 조선에 비하야만철은 이천오백구십오인 철도성선은 이천오백칠십칠인이 대만철도는사백십이인이 더만이탓다 또 하로한키로당의 객차수입(客車收入)을 보면 조선국철은 오십이원사십구전 만철은 오십오원육십이전 철도성은 오십원 대만은 삼십원이십칠전인데 조선에 비하야 만철은 삼십원십십전 철도성은 이십오원오십일전 대만은 사원칠팔전이각기더만히 수입되엿다 그리고또화물의돈수(貨物屯數)를 하로한키로평균으로 조선국철은 일천톤백이십삼키로 만철은 일만오천오백오십구키로로 대만은 이천이백사십칠키로인데 조선에비하야 만철은 일만삼천구백삼십육키로 철도성은 팔백오십사키로 대만은 륙백이십오키로가 각기더만히 운반되엿스며 화물수입은하로한키로평균으로 조선은 이십륙원구전 만철은 이백오십원이십일전 철도성선은 사십원 대만국철은 오십오원팔십삼전인데 조선에 비하야 만철은 이백이십사원십이전 철도성선은 십삼원구십일전 대만은 이십사원칠십구전이 각기증수되엿다 이상의 대조한 성적표를 보아서 조선철도국에서도 아모리 성적이 작구조타고『흑자』(黑字)타령을 하드라도 아직제일을 지에잇는터이여서 만철은 그만두고 대만철도에 따라가기에도 그거리가 상당히 먼형편이다

蘇聯、同胞壓迫을 函館在留同胞가聲明

蘇聯政府의反省을促한다고

關係各方面에聲明書를配付

소련(蘇聯)『포세트』 지방에서 재류동포이십만명을 강제로 이주식혀스며 또연해주(沿海州)방면의재류동포삼십만명에게 무장한압박을더한 소련정부의 불법사건에대하야 함관(函館)재류동포들는 지난이십이일총회를 열고 다음과가튼 의미의성명서와 결의를하야 즉시중외에 발표하는 동시에 남총독(南總督)에게도 이것을 보내어왓다

◇성 명

소련방정부의 이번『포세트』구역에서 우리동포이십만명을 강제로 이주식혀서 그십월을 기우린 농작물을 탈취하얏스며 또다시 산아히월중에는 연해주방면의 삼십만재류동포에대하야 압박에압박을더하야 삼천명이나 사상자를내인것등 언어도단의 비인도적행위를 폭로한사건은 세계평화를위하야 단연용허할수업는 우리동포에대한 참학행위이므로 우리들은 이에대하야 소련방정부의 인도적반성을 환기하는동시에 소련재류동포의 권익을보호하기위하야 이에성명한다

◇決議

一、蘇聯에 在住하는 我等同胞의生活及財産權益保護를 蘇聯政府에 要望할事

二、"포세트"區域內의 今回事件에關한 蘇聯政府의 理由가 那邊에 잇는가를 糾彈할事

三、"포세트"區域으로부터移住된二十萬同胞의 今後生命、生活安定에關한 一切의件에對하야蘇聯政府에서 責任을 지고確保하도록 要求할事

右總會에서 決議함

昭和十二年十一月二十二日

在函館在住朝鮮人團體

引水路施設하면 取入에別無支障

長津江水電의放水路變更問題에對하야

岸川道土木課長現場視察談

【咸興】기보=장진강 수전회사(長津江水電)의 제사호발전소를예정위치보담은 약한키로반이나네리어왓음으로 함흥수조의 취입구에서 그방수를 취입할수업게 되야 함흥평야 일만삼천정보의 관개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되얏다는 큰문제에대하야는 이십팔일 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안천(岸川)도토목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이십구일 농무과기사 수리조합기사장등의 농무관계의 기술자와 기술적으로 문제의 현장을 세밀히조사하야 보앗는데 사실수리조합에서 말하는바와가티 수전제사호발전소의방수로(放水路) 가려하구보담은 하류에잇서서 전연 취수(取水)를하지못할 상태는아니다 그현장은가운데에 섬으로정류가 세갈래가되야잇는데 이번설치되는 사호발전소의 방수로는 그합류점(合流點)보담 이하에잇슴으로 제일좌안(左岸) 즉 제사호발전소측의 강물에흐르도록 방수를 설치하게되얏든데 이럼으로 종래의 수조취입구그대로는 취입할수업는것은 사실이나 그방수로와 취입구사이를 연결하는 인수로(引水路)의 시설만하면 취입에 아무지장이 업슬것이다 사호발전소의취입구가 암만네리어왓다고 하드래도 그래도 취입구보담은 약일백오십메돌가량상류에잇스니 기술적으로 인수하는것은 아무문제가 업슬것이다

라고 기술적으로 적당한인수시설만하면 별문제가업슬것이라고 말한다 이점으로보아결국 가장 중대시하든 이문제도 급전직하로 용이히 해결될것을 서광을 비처주고잇다

引水路設置費用 水電側雅量要望

今後折衝이注目處

별항 이문제에대하야 도토목과장의 말을 드르면 기술적으로 제사호발전소로부터 취입구까지 인수로로 시설을하면 될것이라고 하나 이사이는 약삼백여메돌가량될비로 그인수로를 설치하려고하야도 상당한 거액(방금계획중)을요할것으로 그러지안허도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난이 업지안혼 함흥수조에서 용이히 이공사비를 변출하야내겟는가하는것이 우려된다

최초이문제의 발단은 그해임천정보의관대한 면적의 용수판개에 영향될바만흔것을 일진대 대회사의금도로 (수전)로서 만강의 아량을베여주엇스면 한는것을요망하는배 적지안타 하여튼 금후이수전측과 수조측의 실시설계(實施設計)를 적확히하고서 설치하지안켓다는것에(계획설계와 실시설계는차이잇는수가 만타)려지안쪽의절충이주목된다

年末警戒에 걸린悪店員

년말경계망에 걸린이정원=그는 새벽네시쯤부내원정(元町)이정목 플목에서 룡산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부내 강기정(岡崎町)륙십구번지 박성호(朴聖浩)방에 사는삼경상회(三京商會)점원 김용구(金容九)(二○)란는자로 지난달 십일월 부러 원정 이정목에잇는 모 무대방접에 칠입하야 금시게 담요등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원정 청엽정 강기정방면으로 도라다니며 전후칠건이나 수백원어치를 절취하고 동일에도 행동을개시하고잇든중 경계의 그물에 싸히게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여죄를 엄중취조중이다

配達中의石炭 盜放타警察에

季節犯罪또한가지

부내서게정(西界町)삼십오번지에사는 백남양(白南陽)(三二)은삼일오후네시쯤 서게정(西界町)삼국상회(三國商會)에서 석탄한돈을남대문통(南大門通) 동경화재(東京火災)보험회사로 배달하든중 봉래정(蓬萊町)삼정목 일백사십이번지아페서 그중한섬을지나가는사람에게 팔랴다가 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석탄을사는사람 파는사람 쌍방이모두주의할일이라고한다

水原殺人強盜 無罪로判決

檢事無期役求刑에

지난삼월이십일밤에 경기도 수원군음덕면송조리(水原郡陰德面松照里)리양선(李良善)의 담배가가에 돈을뚜러갓다가 엇다고 푸어주지안한는데 분개하야 그를 칼로찔러죽이고 돈을강탈하려하엿다는 전기송조리 림규환(林圭煥)(三七)에대한 강도살인피고사건은 공판은 삼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립회하에 열렸는테 재판장은 검사의무기징역구형에대하야 증거가충분치안타고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엿다

鴨綠江結氷 사람도通行

삼일오후여섯시쯤하야 평북경찰부로부터 경무국에 들어온보고를보면 삼일새벽초산(楚山)지방기온은 령하십팔도로 압록강의결빙은 상당히 단단하게되야 어른은로 대안사람들이 서로왕래하기 시작하엿스며 이대로멋칠만 치위가계속하면 압록강전부가 모두결빙되야 우마도 왕래하게되리라한다

救急靈藥 천보수 天寶水 非常時家庭常備

식상、토사、곽란、구기、주취、두통、기울、중서、중한、수토불복、선차현훈 흉복통에특효。

▲代理店特約店、配置賣藥大募集

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發賣元 平壤永生堂製藥社 平壤府鐘路里(電話二○六七番) 振替京城一四一四八番

▲五大名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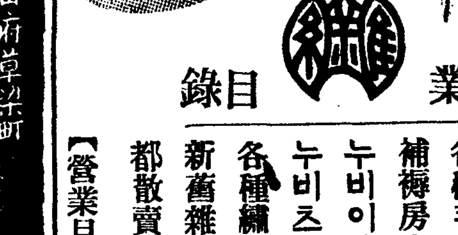
一、崔氏秘傳膏
一、胎養調經湯
一、ネッピリン
一、滅癬水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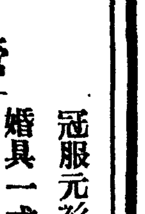
各種製藥本舖

商標 千都 고초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電話園二一八二番 二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二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습니다

冬風耳 冠服





營業目錄: 冠服元衫 婚具一式 各種毛物 補褥房席 누비이불 누비즈네 各種綢物 新舊雜貨 都散賣商

【營業目錄無代進呈】

京城府鐘路二丁目九八 新羅商會 主 朴炅祖 振替京城四三四三番

·肺病專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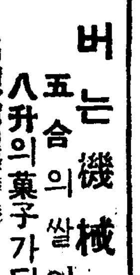
財團法人 海州救世療養院

◎本院案內書 無代進呈 送料三錢
◎療養福音 要八十錢 〃 六錢

朝鮮黃海道海州南山外 電話五一五番·振京一七○六九

米國醫博 院長 醫學士 醫師 醫師 李鄭李賀 点士廷 鶴永雨樂

리ー도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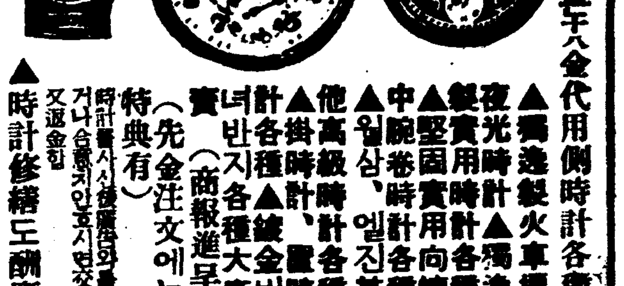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申請次第型錄進呈)

釜山府富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時計大廉賣斷行



▲純金과金가르千八金代用側時計各種 ▲獨逸製火車標夜光時計 ▲獨逸製實用時計各種 ▲堅固實用向懷中時計各種 ▲腕卷時計各種 ▲월삼、엘진其他高級時計各種 ▲掛時計、置時計各種 ▲純金비녀반지各種大廉賣 (商報進呈) (先金注文에는 特典有) ▲時計修繕도酬應

時計를사신분에게는貳年間保證하며 그間故障이잇는時에는 無料修繕又返金함

新義州驛前 合名會社 三一洋行 振替京城貳四壹貳參

東京 羅馬 伯林 樞軸을 新京에 擴大强化

事實上承認은 벌서 昨年의일

伊、滿洲國承認의 意義

伊太利의 滿洲國承認이라는 儼然한 事實은 複雜深刻한 動亂渦中에잇는世界列國의 心臟에 非常한 衝動을 與하얏다

日滿兩國이 緊密不可分의 絶對的關係에잇음은 世界가 다가티 認定하는바이고 伊太利가日獨伊三國防共陣의 有力한 戰士로 또 日滿兩國과가티 世界現代의 新進國으로 帝國과의間에 緊密强力한 親善關係를 가질도 亦是 世界가 是認하는바이다。

帝國은 日滿支三國의 全面的親善提携에 依하야 蘇聯의 赤化工作을 防遏하고 支那의 排日抗日을 撲滅하려고 軍事行動을 이르키엇다 伊國이 此帝國의 行動을 認識、理解하고 잇음은 當者의 九國會議에서 伊代表가 終始一貫 十八對一이라는 全然 孤立悲壯한 立場을固守하면서『日本을 爲하야』熱辯을吐한 一事實에비춰어도 明白하다 日獨伊三國防共陣의 結成은 東京—羅馬—伯林을 聯結하야 歐亞를貫通한

防共線을

結成한것인바 伊國今番의 滿洲國承認은 事實上 此線을 다시 新京으로 擴大强化하는것으로認定할수잇다 따라 如斯한 觀點으로보면 伊國의 滿國承認은單意 日獨伊三國協定線의 延長이라는 結論을否定할수업슬것이다

防共政策에依하야 結聯된 日獨伊三國相互의 關係가 三國의 精神的結合上에 如何히 强力한 內容을 가지는가에對하야서도말할것도업슬것이다 滿伊、滿獨關係의 將來에對하야서도 當然此見解는 首肯될것이다 그런데滿伊兩國關係의 沿革에對하야보면 伊國政府는 昨年十一月廿八日滿洲國政府에對하야 滿洲狀事實上의 承認이라할 領事認可를 要求한 旨를 發表하고 이에 對하야 滿洲國政府外交部는 十二月一日 다음과가튼 發表를하얏다

駐日伊國大使아우릿치氏는 駐日滿國大使 謝介石氏에對하야 十一月廿日公文書로써『伊國總領事館을 奉天에 開設을하므로滿洲國政府의 承認을엇고저의 訓令에 依하야 右 斡旋을依賴함」이라는旨申出하얏다 따라

伊國政府

滿洲國政府는 伊國總領事館의 奉天開設을 承認키로 決定하고 其旨 十二月一日 謝大使로하야금 아우릿치大使에 正式回答케하얏다

그리고 右初代奉天總領事에는 伊國外務省勤務 루이지 코르테제伯이 今年一月十一日 正式으로 任命되엇다。滿洲建國以來 日本을 除하고 正式으로 總領事館을 同國에 開設한者는 實로 伊國이 嚆矢로 이야말로 事實上의 滿洲國承認으로 認定되엇다。

勿論 伊國領事館은 一九二三年 民國十二年 哈爾濱에 開設되어 現在도 存續하고잇는바 一九二六年 民國十五年에는 奉天에도 開設되고 二年後인 一九二八年에는 閉鎖되엇다 따라 伊國의 滿國承認은 이미 昨年來의 懸案이요 既定事實이엇다고 할수잇다。

그리고 今日까지에 滿洲國을 正式으로 承認한者는 日本을除하고 사르바돌共和國 도미니카共和國及 바치칸政廳(羅馬法王廳)이나 獨逸은 昨年四月 日本當局立會下에 바라-씨스템을 根幹으로한

滿獨通商

協定을 締結하야 最近의 國際條約慣例上으로보아도 政治的으로 正式承認의 實態를 示하얏다

또 滿伊貿易狀態에對하야 滿洲國外交部通商司의 調查를 紹介하면 大體 如左하다(單位圓)

◀康德元年(一九三四年)
輸出 四、三〇〇、二〇二
輸入 七〇一、六七六
◀同二年(一九三五年)
輸出 三、八五九、二六一
輸入 一、三五六、七四五
◀同三年(一九三六年)八月末現在
輸出 三三三、六三五
輸入 一、一九六、五二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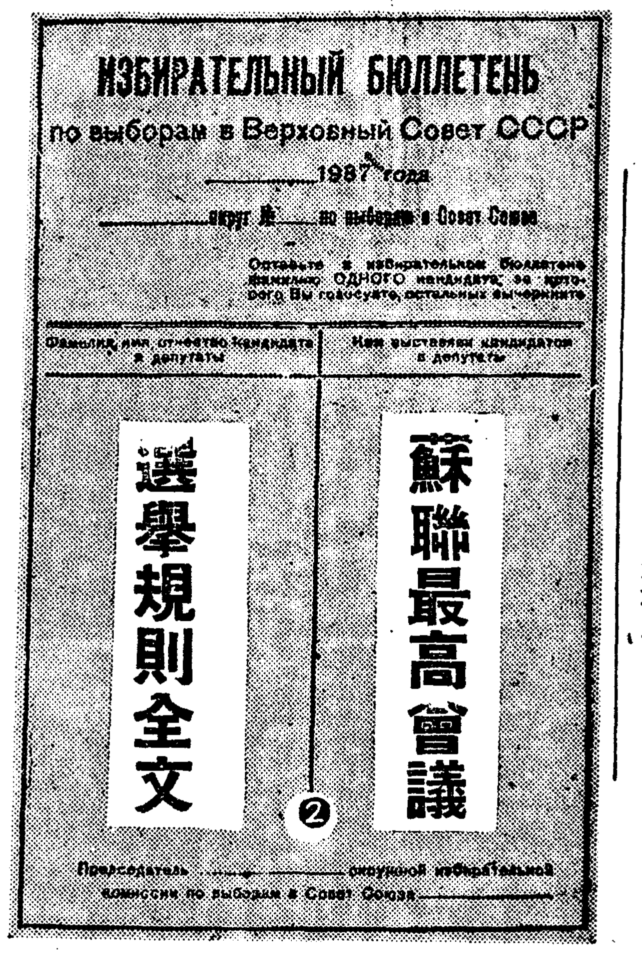
그런데 康德三年中、對伊輸出의 激減은伊國이 에디오피아攻略上 膨大한 軍費를要한것과 聯盟各國의 對伊經濟封鎖에 基因하는바 平時에잇서서는 大豆輸出을 示하야 伊國은 滿洲國에對하야 實로 조흔 顧客이라고볼수잇슬것이다 그리고滿洲國의 對伊輸出品의 主要한것은 子仁(落花生、胡麻等)이 年額二百五十萬圓 豆類가百三十五萬圓이고 輸入의 主要한것은 絲(主로人造絹絲)百十五、六萬圓、果物(乾葡萄其他)十五萬圓、毛類三十五、六萬圓이라한다

伊國 今番의

正式承認

은 滿伊兩國民의 精神的融合을 一層强化할것이며 此結果는 當然 兩國貿易의 前途에 對하야서도 多大한 好影響을齎來할것이다 要컨대 伊國今番의 滿國承認은 日本의 西班牙프랑코政權承認과 滿洲國과 프랑코政權의 相互承認과 相俟하야 日獨伊三國關係를 一層强化緊密化하는것으로 世界에向하야 一大飛躍을 試하려는 重大意義를 갓고잇다

寫眞右로부터 滿洲國(張總理)日本(近衛首相) 獨逸(히總統) 伊太利(무首相)



蘇聯最高會議 ❷ 選擧規則全文

第二章 選擧人名簿

第七條 選擧名簿는 都市에서는 都市勤勞代表쏘베트에 依하야 但區劃을가진 都市에서는 區쏘베트에依하야 農村地方에서는 村(스타니챠、데레우니야 호톨、키슈라크、아울) 勤勞代表쏘베트에依하야作成됨

第八條 選擧人名簿에는 選擧權을 所有하고 또名簿를 作成할때까지 一定한 쏘베트地域에 居住(定住又는 一時的滯在)하는 選擧期日까지에 滿十八歲에 達하는 모든人民을記載함

第九條 選擧人名簿에는 判決에 依하야 選擧權을 剝奪當하고 判決中에 決定된選擧權剝奪期間의 經過中인者、同條으로法律規定에따라 心神耗弱者로認定된者는 記載치안흠

第十條 選擧人名簿는 每各選擧區에 가나다順으로 選擧人의姓、名、父稱、年齡、住所를 表示하야 作成하되 勤勞代表쏘베트議長及 書記가이에署名함

第十一條 選擧人은 誰何를莫論하고 一選擧人名簿以上에記載치못함

第十二條 軍隊及 軍團에서 作成된 選擧人名簿는 司令官及 軍事委員의 署名이잇는 指令에依하야 作成됨 其隊의 全軍團은 住所에따라 勤勞代表쏘베트選擧人名簿에 記載됨

第十三條 選擧期日의 三十日前까지 勤勞代表쏘베트는 選擧人名簿를 一般閱覽에 供하며 或은 選擧人은 쏘베트에서 此名簿를 閱覽할을 保證바듬

第十四條 選擧人名簿原本은 勤勞代表쏘베트、軍隊又는 軍團에서 選擧의 保管함

第十五條 選擧人이 選擧人名簿公表後 選擧期日까지의 期間에 住所를 變更한境遇에는當該勤勞代表쏘베트는 中央選擧委員會에 依하야『投票權證明書』를 右選擧人에 交付하고 또 選擧人名簿에『不在』의旨를 記入함. 新住所—一定住或은 一時的滯在—에서 選擧人이 本人이란 證明書及『投票權證明書』를 提出할때에는 選擧人名簿에 記載케됨

第十六條 選擧人名簿의 誤謬(名簿에 包含치안코 名簿로부터 削除、姓、名、父稱의誤記、名簿中에 選擧權剝奪者不正記名)에 關한申告는 名簿를公表한 勤勞代表쏘베트에 提出함

第十七條 勤勞代表쏘베트執行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誤謬에關한 各申告를 三日以內로 審理하여야함

第十八條 選擧人名簿의 誤謬에 關한 申告를 審理한後 勤勞代表쏘베트執行委員會는 選擧人名簿에 必要한 訂正을 記入하던지 或은 申告를 拒否하는 理由書를 申告人에 交付하여야함 勤勞代表쏘베트의 決定에 不服하는境遇에는 申告人은 人民裁判所에 訴願을 提出할수 잇슴

第十九條 人民裁判所는 三日以內로 申告者及 쏘베트代表를 召喚하야 公開公判廷에서名簿의 誤謬에 關한 訴願을 審理하고 即時로 申告人及 쏘베트에 그判決을 傳達할것。人民裁判所의 決定에 對하야 上訴함을得함 (커트는 聯邦會議代議員選擧投票用紙)

長期戰即應體制

明年度豫算編成精神

昭和十三年度 一般會計豫算案은 三十日의 定例閣議에서 僅 一時間半의 審議로 決定되엇다 最初二十六日의 定例閣議에上程될豫定이든것이 九月의 臨時議會召集으로 今年度節約豫算의 編成等으로 編成事務가 더진것 賀屋藏相이 昨年의 馬場藏相의手法에따라 事務的折衝으로 豫算編成을 맛치고 閣議席上의 政治的紛糾를 어데까지던지 避할 方針을 堅持하얏기때문에 結局 二十六日에는 大藏省과各省間의 交涉이 꼿나지안코 二十九日에이르러겨우 妥協이되어 三十日定例閣議에 附議하게된것이다

明年度豫算案總額은 二十八億六千八百萬圓으로 今年度結城修正豫算案二十八億一千四百萬圓보다 五千四百萬圓이 增加되엇스나 七十議會成立 豫算案二十八億七千二百萬圓보다 約四百萬圓이 減少되어 今年度豫算總額의 一線을 死守하려는 賀屋藏相의 念願이 達成되엇다 今年度豫算第一의 特長은 尨大한 臨時軍事費特別會計와 併行하야施行되는點에잇고 또 明年度豫算案그것은 어데까지던지 事變中心、軍事資材의調整을 第一義로 編成되엇다

따라 陸海軍省豫算은 말할것도업고 商工省의 石油資源의開發增産、石炭增産、機械工業及 鐵山增産力의促進 大藏省의 燃料研究費、遞信省의 航空機의製作及 乘員에關한經費等 相當額의 要求가 承認되엇다 다음에 力點을 둔것은 銃後施設로 保健社會省의 軍事扶助 軍事援護事業에關한經費는 全額承認되고 또主로 이에 關하야 第一、第二預備金을 今年度보다 增額되엇다(第一은八百萬圓에서 千二百萬圓 第二는 千五百萬圓에서 四千萬圓)또 將兵出征에依한農村經濟의 沈滯念慮에對하야서는일우잇는限 地方公共事業의 振興에依하야 이를補充하려하야 內務省의 河川改修費、港灣築港費가 承認되고 農林省의 森林治水事業、林道開設費等이 認定되엇다

明年度豫算의 消極的特長으로서는 軍事國防에 直接關係업는經費는極히節約에努力한것으로就中

一、鐵資源確保의 見地에서鐵材를 必要로하는諸官廳의 營繕一切中止되어잇다

一、國際收支改善의 立場에서 不得已한것을除하고 海外拂을增大할如한經費는이를削除하얏다

一、各省定員增加를 招來할과如한 計畫은이를 認定치안헛다

또尨大한要求額이잇는 陸海軍省의 尨大한要求減이엇다 陸海軍의 既定國防計畫은 當初의計畫대로 全額承認되엇스나 그대로 今年度의 兩省合計十四億九千萬圓(實行保留額四千六百萬圓을包含)에서 一億五千七百萬圓이 減少되어 十二億四千二百萬圓으로되엇다 이는 內地部隊의出征 在滿部隊의 移動에依하야 經常費와 臨時費節約된結果로 臨時軍事費의 計上을 考慮할때는實質上으로는 甚히 軍事費가 增額되엇음은 勿論이다

그리고 戰後의 施設은 一切計上되지안햇다 繼續되는 長期抗戰에도 不拘하고 國民政府는 依然抗日戰을 豪語하고 長期抗戰의 姿態를 取하고잇음에對하야 我國도 亦是 長期戰에 應할 體制를 示하얏음은 明年度豫算을 一貫하는 指導精神이다

九國及不戰條約

當局不抵觸聲明應酬

九國會議顚末 ❷

—金與濟

그러면 九國條約이란 어떤 것인가? 不戰條約의 規定이란 어떠케 되어잇는가? 이에 그條文을 다시한번 參考해보는것도 徒勞가 아닐줄로 잇는다

九國條約은 合九條로 되고 一九二二年二月六日 華盛頓에서 日、米、白、英、支、佛、伊和及葡의 全權委員이 署名調印한것인데 本條約은 尊敬 支那에關한것으로 그 第一條에는 다음과가튼 明文이 씨여잇다。即支那以外의 締約國은

(一)支那의 主權、獨立과그 領土的及行政的保全을 尊重할것

(二)支那가 스스로 有力하고 또安固한 政府를 確立維持하기 爲하야 가장完全하고 또 가장障碍업는

機會를 이에 供與할것。

(三)支那의 領土를 通하야 一切의 國民의 商業及工業에 對한 機會均等主義를 有效히 樹立維持하기 爲하야 各各 盡力할것。

(四)友好國의 臣民 또는 人民의 權利를 減殺할 特別한 權利 또는特權을 求하기 爲하야 支那에잇는 情勢를 利用함을 또한 右友好國의 安寧에 有害한 行動을 是認함을 中止할것을約定하엿다 이第一條야말로 支那代表가金科玉條로 引用하는 條文이다

그리고 또 一九二八年八月二十七日巴里에서 日、獨、米、白、佛、英、伊、波、첵코슬로바키아 九國이 締結한 合三條로된 所謂不戰條約에는다음과 가튼

明文이 씨여잇다。그 第一條及第二條를 이에引用하면

第一條 締結國은 國際紛爭을 解決하기 爲하야 戰爭에 訴함을非로하고 또 그相互關係에잇서서 國家의 政策의手段으로서의 戰爭을 抛棄할것을 그各自의 人民의 일홈으로 嚴肅히宣言함。

第二條 締約國은 相互間에 이러날수잇는 一切의 紛爭또는 紛議는 그 性質 또는起因의 如何를 不問하고 平和的手段에 依하는以外에 이의 處理또는 解決을 求하지안키를約束함。

이것이 不戰條約의 骨子다。이것을 보면 本條約에 署名調印한 國家는 어떤 境遇에라도 戰爭을 抛棄하고 오직 平和的手段에 依하야解決을圖하기를 盟約한것이다 그러므로

日支間에 衝突이 생기자 不戰條約에 參加한 諸列强이 本規約을 云云하게된것이다。

以上에 述한바와가티 米國務省은 此等條約을 根據로하야 日本을 非難하려드럿다。

이에對하야 我外務省은 去十月六日 다음과가튼 情報部長談을 發表하야『가진나라』가『가지못한나라』에 對하야 既得權利의 讓步를 拒絶할때에는 그解決方法은 戰爭에依할밧게업다는 大膽率直한 眞意를吐露하엿다。即 이에情報部長談을들어보면

"世界는 人類를爲하야 賦與된것이다。正直하고 勤勉한 國民은 地上에 如何한 處所에잇서서도 幸福스러히 生存하고 生活을

享受할 資格이 잇슬터이다。그러데 怠惰하나 過去의 蓄積에 依하야 幸福스러히 生活하고잇는者도잇다。그러데一方 正直하고 勤勉한 國民이 生存의 拒絶을 當한다고하면 이보다 더 不公平한것이 잇슬것인가。英國諺에『物이 平을 得치못하면 鳴한다』는 말이 잇다。政治의 要諦는 不平者로 하여금 鳴치안케하는것이다。이는 國內政治에 對하야 그럴뿐아니라 國際政治에 잇서서도 同樣이다。日本은 五十年間에 人口는 倍加하엿다 그러데도 不拘하고 狹隘한 島國外에 發展할 地面을 求하려하면 各國에서 阻止를 當하고잇다。米國이 우리移民을 阻止하고잇음은 人類의自然法則에 違反된다 이는日本國民이 가장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 그리고 또

世界에는現在『가진나라』와『가지못한나라』와의 鬪爭이잇다。資源、原料分配의 不公平의 소리가 最近에 高하게 絶叫되고잇다。만일 이不公平이 是正되지안는다면、即『가진나라』가『가지못한나라』에 對하야 既得權益의 讓步를 拒絶한다면 이를 解決할 길은 戰爭에 依할밧게 업지안흔가。그러나 我國民은 權利로 要求하는것이아니다。西洋流의 權利의 觀念은 東洋人의 心情에는 適反된다。勤勉하고 正直한 日本國民은人類에게 賦與된 世界에서 幸福스러운 生活을 享受할수잇는 充分한 資格을 가지기를 要求하는것이다。米大統領의演說이 支那事變을 念頭에두고 한것이라면이에東洋에서이러난

現下에 問題에 對하여도前述의 所說을 適用할수잇다。日本이 大陸에 對하야平和的進展을 하려함은 日本人의幸福을 求할뿐아니라 支那人에게도 亦是 同樣으로 幸福을 與하려하는바이다。日本은 支那人에게 平和的提携를 求하는것이다。그런데 支那가 武力으로 이를 拒絶하기때문에 今日의 事變이發生된것이다。그러나 支那의 識者는 반드시 日本의 眞意를 諒解하고 世界平和를 爲하야 共存共榮의 途에 進하게될것을 미더 疑心치안는다。"

다음 九日 外務省에서는 거듭 左와 가튼 重大聲明을發表하야 事態의眞相、帝國政府의 公正한 眞意、九國條約과 不戰條約에 對한 帝國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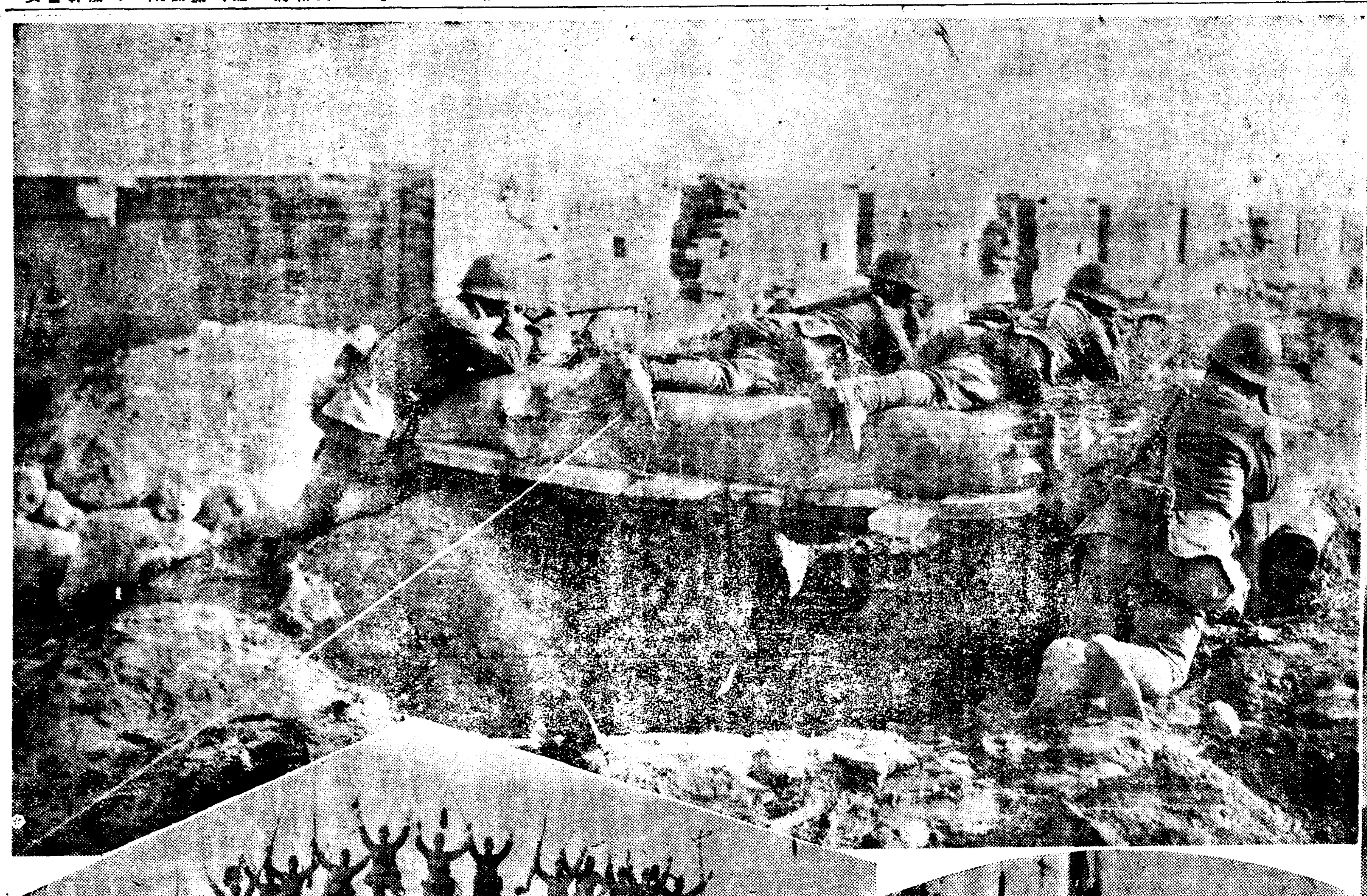
態度를 中外에 闡明하엿다 이에 外務省聲明을 들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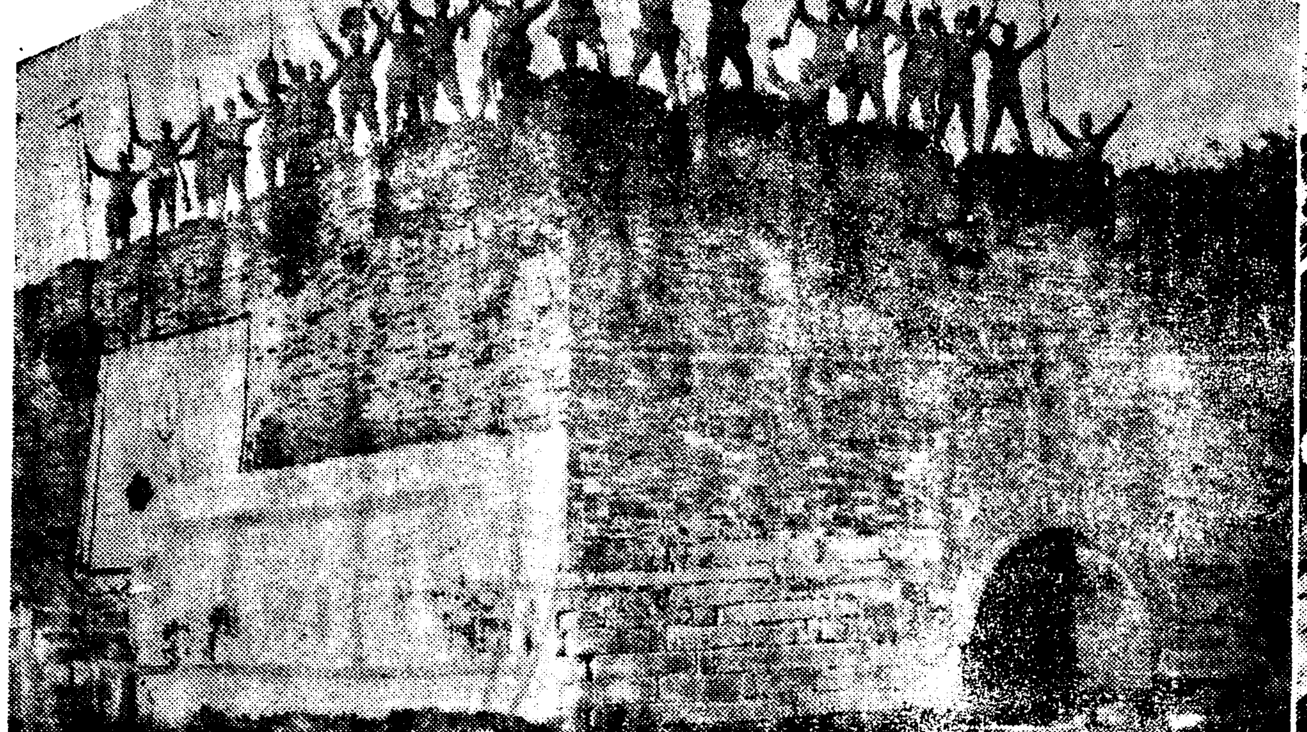
"國際聯盟은 現今 帝國이 支那에 잇서서 取하고잇는 行動을 九國條約과 不戰條約違反이라고 斷定하고 米國國務省도 또同主旨의 聲明을 發하엿스나 右는 今次事變의眞體와 帝國의 眞意를 理解하지못함에 起因하는것이어서 帝國政府의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今次事變은 條約上明白히 認定된 駐兵權에 基하야 合法的으로 北支에잇든 帝國軍隊에對한 支那軍隊의 不法攻擊에 發端된것으로 當時蘆溝橋에서 從事한것은極히 小部隊에잇슬뿐아니라 當時支那駐屯軍은平時任務를爲하야 各地에分散配置되어잇섯든것과 또 事變勃發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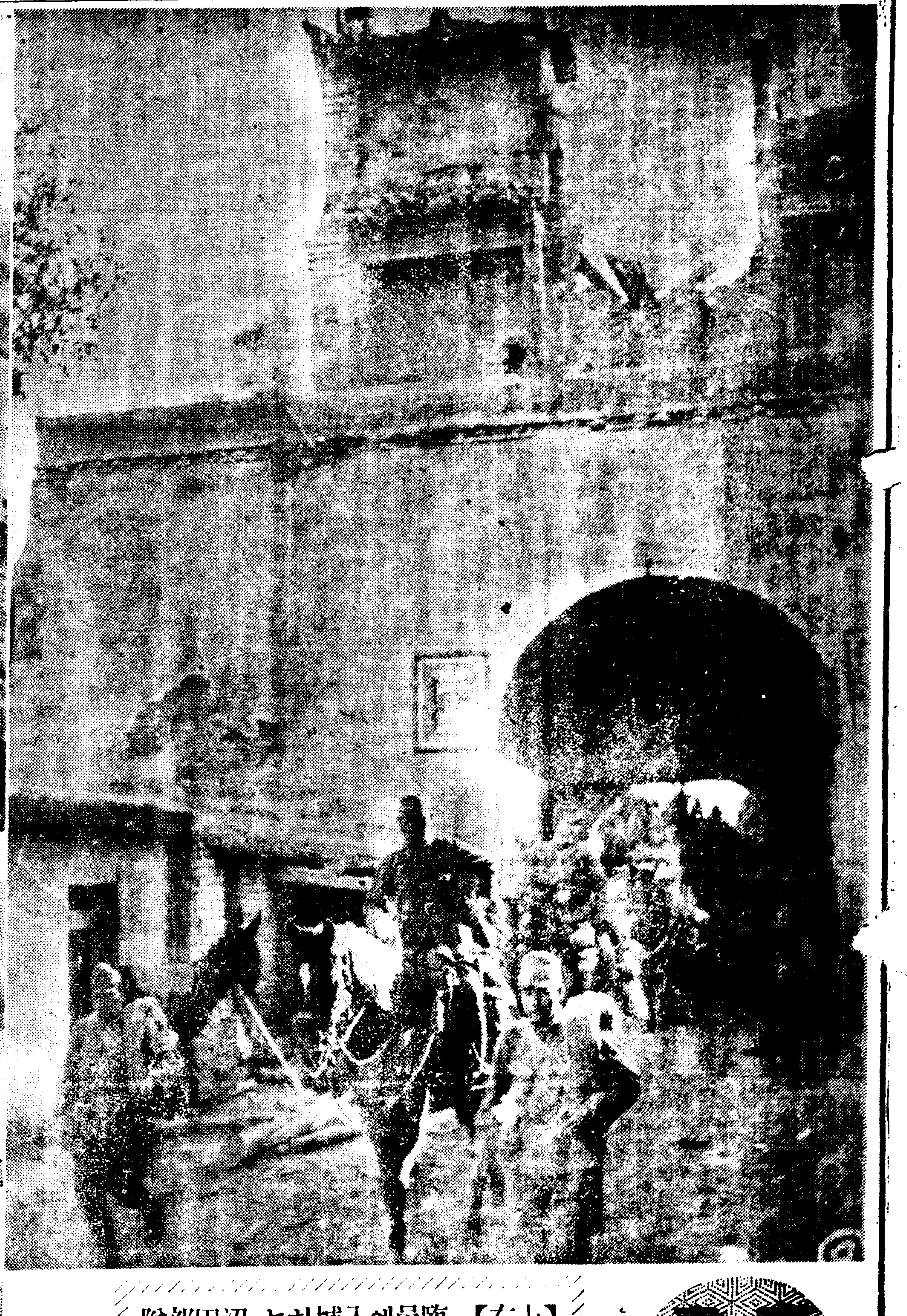
日本이 作戰上의 不利를 참아가면서까지 局地解決을圖함에 꼿까지 努力한것을 보면 我軍의 行動이 何等計畫的의것이 아니오 全然 自衛의 措置에 不外하엿든것이明白하다。또上海에、뒤니어 中支各地에 事變이 擴大함에 이르른것은 支那側이 一九三二年의 上海停戰協定을 깨트리고 非武裝地帶에 三萬의 優勢한 軍隊를 드려 三千內外의 僅少한 我陸戰隊와 婦女子를包含한 約四萬의 租界在留民을 殲滅하려함에 基因한것이다。그리고 그後의 軍事行動의發展은 한갓 支那側에 잇서서 帝國의 現地解決과 時局不擴大의 方針을 無視하고 大軍을 移動集結하야我方에對하야

全面的으로 敵對行爲를 하엿스므로 我方도不得已 軍事的行動으로써 이에 應酬함에 不外하다。要컨대 帝國이 今日 支那에서 取하고 잇는 行動은 支那側의 計畫的挑發行動때문에 不得已한自衛措置로 帝國政府가 現下의 對支行動에 依하야 支那에求하려하는것은 前記對日挑發行爲의 根源이되는 排日抗日政策의 放棄와 日支兩國의 眞摯한 協調에 依한 東亞平和의 具現에 잇고 何等領土的企圖에서 出한것이아니다。따라서 帝國의 對支行動은 如何한 意味로던지 九國條約에도 違反되지 안코 도리혀 赤色勢力에 操縱되어 國策으로서 執拗惡辣의 排日抗日을敢行하고武力行使에依하야自國內에잇는日本의

權益을 排除하야버리려하야 今次事變을 招來한 支那政府야말로 不戰條約의 精神에 背戾하고 世界의 平和를 威脅하는者라 할것이다」이것이 外務省聲明全文이엿다。







事變畫報

【上右】臨邑에入城하는 沼田部隊
【上左】○○城壁警備의 皇軍
【下右】追擊砲彈과 地雷의戰利品
【下左】太倉大南門先着 永津部隊

地方論壇 傳染病豫防에對하야

厚昌郡七坪市에 病名을 알수업는 傳染病이 蔓延하야 벌서 五名의死亡者를 내엿고 또한現在 罹病中에잇는 三十餘名患者의 生命도 風前燈火와 갓다함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 只今도 더욱蔓延中으로 또 一名이 死亡하엿다고하니 實로 驚愕할病魔라할것이다 그런데 彼地에는 醫療機關으로 最近까지 公醫一名과 醫生一名이 잇섯든바 公醫는 數日前에 某鑛山의 囑託醫로 轉出하엿고 醫生은方今蔓延中에잇는 이傳染病으로死亡하엿다하니 醫療機關은 全無하게 되엿다할것이다 이런中에 病은 漸漸 蔓延되여 患者들은 藥도 써서보고 死亡하엿고 罹病中에 잇는患者도 亦是治療를 밧지못하야 死境에臨하엿다하니 實로 悲慘한일이다

當局에서 道立江界醫院과 道立診療所에서 數次出張하야 厚昌에서 治療하엿다하나 數十日이經過한 오늘에도 確實한病因을알지못하고 自信잇는治療를 못한다고하니 이것이可歎할바아니며 世界에 자랑한다는 우리의醫學을 信任할수잇으랴

衛生當局에 一言하노니 彼地는 交通頻繁과 江中에의 中央地로 來往人이 連絡不絕하야 何時에 病魔이 侵襲할지 一般民衆은 恐怖中에잇다는데 何等豫防策을 講究치안코 傍觀態度를 取하는것은 非難이不少하니 此際에 萬全의 豫防策을 樹立하야 病根退治에 全力하는同時 아울러 時急히 高明한醫師를 招請하야 死線에서彷徨하고잇는 多數患者의生命을 救出하기를 懇望하여마지안는다 (厚昌支局 一記者)

生産費의暴騰으로 鰮漁業者大打擊

數字上으론空前의豐獲이나 텅텅뷔인個人의囊中

【咸興】히유의 대풍획이라고떠들든 함남의정어리도 결국은이동에는 하는수업시 인제는거의 종막을고하고 남하(南下)하고잇는데 총어획고는 삼백사십만통으로 전년의배나 되얏다고는하나각업별로 각개인의 주머니를 라진하야보면 의외로 손득의차가심한배잇다 위선제일 대규모로정어리의 약팔할을 점령하고잇는 건착망(巾着網)을보면 총어획고 이백사십육만 일천사백사십구정(丁)으로 이것을일백팔십명으로 분배하면 일인당평균어획이 일만삼천칠백통 삼만사천이백오십원으로 이어업년간 조업비평상액 일만오천원이라고하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잇다고 할수잇다

다음대중어업인 범선자망(帆船刺網)은 사십일만 일천오백십일통으로 륙백척에 분배하면평균일천육백팔십정 일천칠백원으로 이것은 조업비가 애우라지 사백통바게 들지안흠으로 의외로 수익이만타

그리고 기선자망(汽船刺網)은 이만팔백사십칠정으로 백척을평균하면 평균이백정 오백원인데 조업비는 삼백정이나드는데 도리혀 손해를 보고잇는세음이다

이것으로보면 건착망 기선자망은모두 수지가맛지안흐나 대중어업인 범선자망은 금년에 한하야 극히호황인데 이것은금년의온어회류(廻游)가 기후관계로 비교적 근해로옴겻다는것이 원인이되며 건착망은은 중유(重油)등 생산비가 폭등한것이 큰 원인이된다

降雪로乾燥不能 鰮粕調製도困難

咸北에는半製品山積

【淸津】정어리가 만히잡히는덕택으로 제품을산가티 싸혓스나 송입기근(送入飢饉)으로 출하를 못하드니 이번은 다시눈이 나리여싸이게되고 일기가 정작겨울날로 변하고 마랏슴으로 로적(露積)한까스(鰮粕)를 소위천일간조(天日乾燥)할 방법이업서서할수업시 명년봄까지 그대로 상품화 하지못하고"스톡크"로 가지고잇서야할 난경에 빠저잇다 이처럼 천일간조를 못하는온박이도내에 적어도 오십만짝으로그가격이 이백만원에 달할터라한다

제품을 상품화하지 못하는이 고민은 중소제조업자에게는 커다란 타격을주는것으로 이에대한적당한 구제책의 강구가 업자로부터 유비수산조합(油肥水産組合) 측에 요망되고잇서 금후조합측의 태도가 주목을끌고잇다

冬季氷割增保險 三倍增徵을通電

『丸나協會』對策講究

【鎭南浦】진남포항은 원래 부동항(不凍港)인관계로 겨울동안 출입하는 선박(船舶)의 보험료제가 그리시끄럽지안어 오든바 작년겨울 미증유의 혹한으로 류빙(流氷)이 심하여 보험회사(保險會社)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게되여 각업자간에 큰충동을일으킨바이서 금년겨울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태도를 극히 주목하고잇는바 이지음 보험회사에서 돌연 보험료를 작년에비하야 삼배 즉 십이월십오일부터 명년 삼월십오일까지 백석에대하여 삼십원을 증수한다는 전보가 곡물협회(穀物協會)에 드러왓다고한다 이는 너무나 뜻박게처사인 동시에 곡항 진남포에 사활문제라고 해서 마루나곡물협회에서는 긴급역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협의한결과 금년은 기후도 온화할뿐아니라 작년과가튼 류빙이 업슬것임으로 백석에대하야 십오원식으로 승인을 일선하여달라고 동경상선수송협회(東京鮮米輸送協會)에 전보로 의뢰하엿다고한다

九岩學院落成式

【新市】귀성군사기면구암동구암학원(龜城郡沙器面九岩洞九岩學院)에서는 십이월일일 그학원에서 창립일주년기념급 학원신축락성식을 거행하얏는데 관민다수참집하야 성황을일웟스며 그학원은 학원장허덕초(許德初)씨의 열렬한지도와 일반동민의성의에의하야 교운이 날로진흥하며 장차농촌교육의 중추기관이 되리라한다

瑞山防火데ー 千餘名이總動員

【瑞山】십이월일일을기하야 전국적으로 실행한 방화데ー는연하긴박한 정세에 비초여행사는 극히필요하므로 서산경찰서에서는 당지소방조와 협력하야 일즉부터 각방면에 실시계획을주지식히는동시에 오래전부터 준비에바뿌든바 지난일일 오전구시 서산신사에 관민유지와 학생등 천여명이 집합하야 방화기원제를 집행하고 이어 영지봉독식을 거행한후 각종방화선전대기와 악대를 선두로 시가지를 장사진으로 일순하야 경찰서압광장에서 만세삼창으로 해산한후 경찰과 소방조는 계속하야 각호를 방문하며 방화선전과 회원조사를하며 별동대는 승합뻐스 택시등 시내각자동차를 총출동식혀 방화기를 달고 방화선전포장을 차에둘르고 악대를실코 시가지순회를 하엿스며 각리각소에서는 방화선전강연회와 좌담회도 여럿다고한다

通川서도旗行列

【通川】통천에서는 지난일일방화데이에 각단체에서 사천여명이 통천신사에모이여 참배하고 이어서 기행렬(旗行列)을하엿다

海州에서도盛況

【海州】년년히 겨울이면 축융(祝融)의발동으로할미암아 손실되는인명과 재산은 실로놀내일만

平壤府電買受後 最初로料金減下

西電에서遞信局에許可를申請 實施되면廿五萬圓減

【平壤】문제중에잇는서선합전(西電)의 평양부전매수 문제는 임이일단락을짓고 오는 일월일일부터는 완전히 간판을 박구워달고 영업을 개시케되어잇는바 이와동시에 전기통제의 중요조목인 저렴의 전기공급에 의하야 전력료금을 경성과가티 나추기로되어 삼십일 평남도경유로 전력료금개정신청서를 체신국에 제출하엿다는데 그에의한 료금개정은 다음과갓다 그런데 이로인하야 서전에서 명년즉첫해의 감수액은 약이십만원이라한다

▲定額燈	現行料金	改正料金
十燭光	五三錢	五〇錢
十六燭光	六五	五五
二十四燭光	八二	六五
三十二燭光	九九	七五
五十燭光	一三二	九五
百燭光	二〇〇	一五五

▲從量燈	現行準	改正準
百〃키로〃까지 (一〃키로〃에)	一五	一三
百〃키로〃以上 (一〃키로〃에)	一四	一三
二百五十〃키로〃以上 (一〃키로〃에)	一三	一二

(最低料準 四燈十〃키로〃一圓五十圓을 三圓으로하고 夜間五〃키로〃六十五錢 晝夜間七〃키로〃九十一錢으로함)

▲動力		
低壓		
二、五〇〇〃키로〃까지	四、四	四、〇
二、五〇〇〃키로〃以上	四、一	三、八
五、〇〇〇〃키로〃以上	三、七	三、五
一〇、〇〇〇〃키로〃以上	三、三	三、一
高壓		
五、〇〇〇〃키로〃까지	四、〇	三、七
五、〇〇〇〃키로〃以上	三、五	三、三
一〇、〇〇〇〃키로〃以上	三、三	三、九
二〇、〇〇〇〃키로〃以上	三、〇	三、五

有力會社等連署 郵所設置陳情

【淸州】충북청주읍(忠北淸州邑)은 삼만인구를 포용하고 상공업의 발전도정에잇스나 통신기관으로는 청주우편국(淸州郵便局)일개소밧게업서서 읍민들의불편은 자못컷든바 청주역장(淸州驛長)과 충북자동차운수주식회사(忠北自動車運輸株式會社)와조선농회청주비료배합소(朝鮮農會淸州肥料配合所)급 조선곡자회사청주지점(朝鮮麯子會社淸州支店) 충북산업주식회사(忠北産業株式會社)청주미곡상조합과 남선상사주식회사(南鮮商事株式會社)등의 청주에서의 유력회사를 비롯하야 개인으로도 백여명의 연서로 청주읍에서도 가장상공업지대인 역전에우편소(郵便所)설치를 체신국장에 재진정코저 금명간상경하리라고한다

慶南道普校擴充案 短縮前提로檢討

旣定年限十個年을五年으로 增級은一千六十學級

【釜山】경남도 보통학교 십개년 확충계획인 소화십이년도부터 소화이십일년도까지에 일천륙십사학급을 증가식혀 현재의 취학률인 삼십륙퍼센트를 륙십오퍼센트로 향상식힐 방침으로 실시중에 잇다함은 기보한바인데 이번 총독부당국의 회기적 단축계획에 의하야 소화십삼년도부터 십칠년도까지 오개년으로 단축하는동시에 기정방침을 수행키로 결정하고 명년도예산에 계상하야 제이차 확축계획의 근본적 재검토를 하기로결정하엿다

康津長興에서 道立醫院運動

【光州】전남도내에는 광주 순천 제주(光州、順天、濟州)는 삼개소에 도립의원이잇고 목포(木浦)에는 부립의원이잇서 관료의립 의료기관으로는 전기사개소의병원뿐이엿는데 오래전부터 남해안지방에 도립의원을 일개소증설할필요를 늣기고 도당국에서 조사를 진행중이엿는데 강진(康津)과 장흥(長興)량군에서는 각각기금을 칠만여원을 모집하야노코 도립의원설치운동하야 오드니 근근이십여만원을 드려 설치할것이 구체화함을 따라그 운동은 의의맹렬히하고잇다한다

淸津府會에서 更正豫算可決

【淸津】삼십일오후한시에 소집된 청진부회(淸津府會)는 이십칠명의 의원중에서 출석의원이 십일명에 즉시개회하고 신의원 다섯명의 석차(席次)추첨을마친 다음 상정한 네개의 갱정예산안(更正豫算案)을 전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소의 질의응답이잇슨후 동세시반에 폐회하엿다한다

米都群山港의『癌』인 附帶費問題解決

群山府尹의調停으로

【群山】기보=군산항에 잇서암(癌)으로되어잇든 부대비문제(附帶費問題)에 잇서서는 그간하주(荷主)측과 수협지부(輸協支部)의간에원만한 해결을 보지못하고 의연히 의견대치의 현상이엿섯든바 좌등(佐藤)군산부윤은 이문제의 장래를우려하야 지난일일오후 사시에 하주측(荷主側)의 대표와 기타관계자를 부윤실에초청을한후 하주측으로부터 기탄업는의견을 청취한후 다시수협지부(輸協支部)대표를 청하아다가 타협을 식힌바 쌍방에서는무엇보다도 대국적견지에서 원만해결할것을 약속하고 모든해결방법을 부윤에게 일임키로하엿다는바 져서발표는 일량일중에 하리라한다。

盈德에棉價低落 農家打擊甚大

【盈德】경북영덕군(盈德郡)에서도 수년내로 면화장려에 주력하여오는중 금년은풍작이 면화가가저락되여 틀증에십삼전 즉년에비하야 삼원이나지 반액에불과할때도잇다는바 최하는륙

淸津"빠락"街에出火 廿二戶全半燒

被害者는모다細窮民

【淸津】삼십일오후 아홉시사십분쯤 부내축정(祝町)십일번지리현명(李鉉明)방에서 불이부러경각간에 린가에 연소되야 삼롱십칠호를 전소하고 다시 삼롱오호를 반소시킨후에 동열시반에 이르러 겨우진화되얏다는바 출화의원인은 역시로화에서 이러난것갓다는데 피해가옥 전부가"빠락"으로 그중전소된중에는 조선인이십이호와 일본내지인오호가잇고 반소가옥은 전부가 일본내지인가옥이엿다는데 세민층인것만큼 액수로 큰것은업스나 상당한 피해액이 잇슬것으로보인다 주택난과 엄동을당한 이십여호의 백여재민의 거처가 념려되고잇다

淸津의電話市勢 全國的의高價

【淸津】지급전화(至急電話)의추가결정이된이래로 공사는점연중에잇든 청진전화도 십이월에야 겨우일부의 개통을보리라는데남은부는 역시년내에도 그가망이 업서보인다 현재청진이가지고잇는 전화대수는 일천이백여대에 달하는데 평창도시의 현세는 역시전화기근을 전하야금년의 대량개통도 조금도전화시세(電話市勢)를완화시키지못하고잇다 현재매매되는 가격을보면 일천이백오십원에서 이천원대를 오르고내리고 잇는데이가격은조선안에서는 물론일본전국에서도 보기드문 고가라하야 자랑아닌 제일이 청진에도하나생겨난 세음이다

年産二萬石目標 無水酒精增産

慶南道積極奬勵方針

【釜山】경남도에서는 연료국책상 무수(無水)알콜을 증산할 게획으로 금년도부터 울산(蔚山) 진주(晉州) 의령(宜寧)삼개군에 감저(甘藷)급 그대용작을 장려하야 시작조사중이든바 그성적이 매우 량호하므로 증산의게획을세우고 십삼년도에는 계속장려하야 십사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무수알콜의 제조에 착수할터인데 부산부내에 그제조공장을 설치하야 일년간에 이만석을 생산케할 내정으로서 감저증산을 철저히 장려할 방침이라한다

洛東江海苔豊作 生産額廿萬圓豫想

【釜山】경남의 명산인 락동강(洛東江)의해태양식성적은 그동안 천기순조로 발육이매우량호하야 대풍작을예상하고잇는데금년도 생산액은 이십오만원가량이되리라하야 근년에 보지못하든 대풍작으로서 업자들은수확기를등하야 만흔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養殖坪	七十七萬五千坪
養殖業者	三百名
篊竹	二百五十一萬本

膓窒扶斯가發生

【綾州】전남화순군청풍면(和順郡淸豐面)산간벽지인 풍암(豊岩)에 장질부사환자가 발생하여청풍주재소에서는 방역진을 치고 방역에진력중이라한다

英靈合同告別式

二日午前、平壤서執行

【平壤】북지제일선에서 혁혁한 무훈을세우고 꼿으로 떠러진리동부대(鯉登部隊)의 중도(中島)중좌이하 〇〇〇주(柱)의 영령의 군관민합동고별식은 지난이일오전열시부터 보병칠십칠련대영정(七十七聯隊營庭)에서 그들의유족을 비롯하야

在平陸軍官民 鄕軍 防護團 各町里會員 將校婦人團 國婦 愛婦

등 회원참례로 엄숙리에 동열한시 [illegible] 식분 평양역발 특별렬차로 재양관민다수봉송리에 고토에 무언의 개선을 하게되엇다한다

兩君無言凱旋 府民合同告別式

【鎭南浦】진남포출신으로 북지전선에서 무언의 개선을한 장도경일 암전충의 (長島啟一、岩田忠義)량군의 유골은 지난이일오후네시반 진남포착렬차로 수천관민들영리에 도착하여 삼일오후두시부터 진남포부청압해서 부민합동고별식을 거행하엿다고한다

無用한競爭을廻避 大同團結論擡頭

自覺한西北木材商들

【淸津】청진회령등의 함북각지와 혜산진(惠山鎭)파 신의주(新義州)등각지방에 산재한 유력한 목재상(木材商)중에서 철도침목(鐵道枕木)을 철도당국에 납품하고잇는 업자사이에서 대동단결하야각자의 상업상처지를 유리하게 만드자는 론의가 떠돌고잇서 의외로 실현성이 만하보인다한다

즉현재 철도국이나 만철(滿鐵)등은 각사철(私鐵)에 납입하는 침목은 가격에대한 업자간의 통제가업기때문에 경쟁하는관계로 적잔흔 손실을 보고잇다는데 이는 주로당국에서 거상(巨商)을 충동시켜 헐가로매매하도록 내교섭을 한다음 적은상인에게는 억울하든말든 이에순행하도록 만들고 말게됨으로 항상적은 상인은 대상인들의 전횡에 치여 정당한가격을 밧고서 매매하지못하게 되야왓다한다

이제 전조선적으로 이가튼페해를 통감하게되야 중소상인에게서는 조합가튼것을 조직하자는론이 활발하게 타오르고잇서실현성이업지안흐나다만대상인의 태도가 파연이에 찬동할는지가 크게주목을 끌고잇는데 문제를 중요히 리해하는 대상인가운데서는 이가튼단결이나 협정이 도리혀 각자에게도 유리한점이만타하야 일부찬동의 기색을 뵈고잇다한다

發生七百十名 百四十一名死亡

【釜山】금년도부산부내의 전염병환자의발생과 사망자와 현재의환자수는 신입원환자와현재의조사에의하면 환자총수가 칠백십명이며 사망자가일백사십일명 현재의환자가 칠십칠명이라는데 병명으로 종별하면 다음과갓다

病名	發生數	死亡	現在
腸窒扶斯	一六二	二八	三五
赤痢	四四五	九〇	二七
猩紅熱	五七	五	一〇
지부테리아	二七	二	二
파라지부스	八	―	一
流行腦脊炎	一一	六	二
計	七一〇	一四一	七七

慶北農振委員會 陰曆廢止를決定

明年一月부터實施

【大邱】경북도에서는 각도에솔선하야 음력(陰曆)을 단연폐지하기로 방침을정하고 초하룻날 개최한 농촌진흥위원회간부회에서 구체안을 결정하엿다。

오는소화십삼년정월초하룻날에는 각관청 학교등은 물론일반 농민은 오전여덟시에 공려조합(共勵組合)및 농촌진흥조합(振興組合)에 집합하야 세배의식(禮拜式)을 거행하며 오는음력의 정월을폐지하는동시에 음력의풍습을그대로 양력으로 개정한다는데 실시년월일을 기하야 전도일제히 실시할터이라한다

鰮油廢液의被害 當局서調査開始

調査結果가매우期待

【咸興】온유공장(鰮油)에서 배출되는폐액(廢液)이 해면에류출되야 연해의소어류 해초 패류(貝類)등의피해가극심하다고 소어업자들의 비명이 자못놉고잇는데 이에대하야 도수산당국에서도 극히그영향을 중대시하야 간급히 그대책을 세우고일일 연해각군에대하야 아래와가튼지급조사를 통첩하얏다

조사사항은 피해구역과 시기 피해상태 피해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의최근오개년간의 년산액과 금년관계공장의위치 경영자등을 일일히 지급조사하야 회보하라고 통첩하얏다

이문제는 작년에도이은 문제인대 근해의수산동식물은 이부패한 온유폐액의유기물(有機物)로거이 전멸상태에이른다고 업자들은 치명적 타격을 밧는데 이대책으로는 위선온유공장의기계를개량하야 폐액을적게하는동시 이폐액은 원심분리기(圓心分離機)로저 분리작업을하야 온유를 재제(再製)하여야되는데이것을실시하면 피해도절멸 온유도 증산하는 이중의리익을어들수잇다고하는데 금후각군의조사를 바다가지고 강구할 도수산당국의 대책이주목된다

年末繁雜한때 大田本町에工事

【大田】대전우편국에서는 일주일전부터 본정통에다 지하케ー불(地下)공사를 착수하야공사중내에서 요사이는 제일분주한 세말을마지하자 딸아서 제일교통이번잡한 본정통을행중지임으로 대전부민일반은 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빼스에치어慘死 길가에서놀든少女

【金海】한길에서 놀작난을하고놀든 소녀가 겨거해잇든 자동차미테 굴러드러간 돌을 주으러 들어가다가 돌연 자동차가 출발하야 무참히도 직사한 가여운 사실이 일일오전구시반에 김해서 발생하엿다 경남자동차주식회사의뻐스(경남一六七一호)를 운전수 김구만(金九萬)(三二)이가 운전하야 진영서 도라오든중 우편물을 내리기위하야김해우편소아페 정거하여 잇든중 그때 부근에서 이웃읍을피신에서 놀고잇든 김해읍 동상동(東上洞)고전금차랑(高田金次郎)의 장녀 계자(桂子)(七)가 자동차미트로 굴러들어간 돌을주으려고 뒤편바퀴미트로 들어갓슬지음에 우편물을 다내려준 빼스가 출발하매 뒤바퀴에 몸을 치여 참혹하게 직사한것이다경찰당국에서는 관계자를 입치하야 그경위를 지금조사중이라한다

大邱無電開局式

【大邱】대구무선전신국(大邱無線電信局)은 금춘에 준공하엿든바 오는사일정오부터 공회당에서 개국식을 거행한다고한다

正租滿載한帆船沈沒 乘組員三名溺死

群山近海의慘事

【群山】지난이십팔일 전북부안(扶安)에서 벼(籾)이백팔십삼입(叺)을실코 군산을향하야 오든중 군산근해인 고군산(古郡山)부근에서 때마침부는폭풍에 난파(難破)된바로 일반관계자들은 그의행방을 극력 수사중이던바 지난일일 전기고군산 부근에서 동범선(帆船) 파편(破片)을발견하얏다는바 동범선에는 선장백모(白某)외 선원두명이 타잇섯다는데 그들도전부 익사한듯하다한다

光陽草南鑛山서 人夫一名慘死

【光陽】지난 삼십일오전팔시경 전남광양군초남광산(草南鑛山)인부최윤종(崔允鍾)(二七)은 이번항내에서 작업하든중 크다란암석이 압에서떠러저 외편얼골에 타박상을당하는동시 오른머리는 석벽에 충돌되야 뇌진탕(腦震盪)을 이르켜 무참히 사망하엿다고한다

大邱에도初雪

【大邱】지난초사흔날 대구지방은 초설(初雪)이 내리엿다 대구측후소(大邱測候所)의 발표한바에의하면 지난삼일 영양군수비면(英陽郡首比面)지방에 초설이잇섯는뒤에 도내각지에 비번히 초설이잇섯든바 오늘대구지방은 일일새벽부터 서쪽바람이 강하야 오전여덟시사십륙분에야간의 초설이 내리엿는데 장년에비하면 가튼날이고 례년보다는 나흘이늣다 그리고 이일미명에칠백오십『미리』의 저기압이 일본해에나오는 몽고(蒙古)의 고기압이강하야 발달 하야 칠백 칠십륙『미리』를 보이여서조선의기류는 급변되여 초설을보인것이라한다

晋州에도叺飢饉

正租共販에支障甚大 一躍三十錢에도求之不得

【晋州】진주군농회(晋州郡農會)에서는 정조공판(正租共販)을장려하는일방 일선에 노력중인데 최근에 와서는 가마니(叺)의부족으로 지장이만타는바 즉 장(市場)날에 진주로 몰려드는정조는 하루에약 사천가마니 에달하는터임에도 불구하고 가마니는 겨우 그일할인 사백매박게 생산되지안어 평소 십오전내외하든것이 근일에는 삼십전내외로 매매되는 현상으로되어 대책을 강구치 안으면 안되리라하며 그원인은 지난번 군용마량(軍用馬糧)의 대맥에 대부분 사용되여버린데 기인함이라한다.

바다化할長津邑 移轉協議成立

官公署移轉만도十八個所에 著名한古蹟도不少

【咸興】강계수전의 저수지(江界水電)에 편입되야 이전할수밧게업는 구역과 그이전후보지에 대하야서는 이미 보도한바와가티 장진군청(郡廳)은 하갈우(下碣隅)로 경찰서는 북면 중흥리(中興里)로 이전키로 회사와 도당국과 완전히 협의가 성립되고잇다

이 관수구역(冠水區域)은 공교롭게도 군청소재지로 장진군청의 정치중심지가 물에잠기게될것이며 이군청과함께 이전할수밧게업는 관공서는 모두십팔개소나된다 이중에는 동지의 명승고적으로 사람들의 발을멈추게하든 유명한 간검루(看劍樓)송영정(送迎亭)도 이전할수박게업는운명에 빠젓다

이땅은 지금으로부터 일백이십년전 선조대(宣祖)때부터 군청소재지로 장진의 복장으로되고잇섯는대 위대한과학문명의희생으로 물속에잠기게되야 동군으로서는 일말의섭섭한감을 금치못하고잇다고한다

咸興藥令市中止

【咸興】매년십이월일일부터 개시하야 대성황을이루고잇든 함흥약령시(藥令市)는 금년은특히 시국관계로 제일큰 고객인만주방면의 만삼(蔓蔘)의 취인이전혀 끈히지고 또중국으로부터다량으로 입하(入荷)되는 당재(唐材)가들어오지못하야 부득이중지키로되엿다

倉庫마다積穀!

處置에困難한玄米 淸州에도貨車配給不足

【淸州】청주(淸州)에도 화차불급으로인하야 예약한현미를 기일내에인도치못하고 해약함으로써의피해와 수이출급으로 금불통이되여 당업자들은 곤난의 절정에이르고잇다는바 듯는바에의하면 청주읍내의 환성운송점(丸星運送店)창고와 농업창고는 물론이고 각개인창고에까지 더 입고할수업슬만치되여 아프로이삼일후부터는 야적(野積)할수바게업도록 되엿다는데 이출의긴급을요한현미가 약팔천석이나된다고한다

地方人事

▲金東雨氏(前瑞山習校訓導)溫泉習校轉勤人事次本社瑞山支局來訪
▲張德明氏(前新京警察署高等係員)安東縣警察署轉勤人事次本社新京支局來訪
▲李澤俊氏(前平康郡廳)洪川郡廳勤務主任榮轉人事次本社平康支局來訪
▲早田敎藥氏(森林主事)金城森林保護區轉勤人事次本社麟蹄支局來訪
▲安昌佑氏(森林主事)楊口長政森林保護區轉勤人事次同上

長篇小說 濁流 【54】

蔡萬植 作
鄭玄雄 畵

『조고만한事業』(8)

『내가 네깐놈의데를 다시는발거림이놀 하나보아라』

정주사가 제무럼에 빼처、미두장께로대고 눈을흘기면서 이런 배천 소리를한것도 실상은 그당장뿐이요 바루 그이튼날도 갓섯고 그뒤에도 매일가서『하바』도하고 어칠버칠 하기도햇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미두장에서 돌아오는길에 지금 탑삭부리한참봉네 싸전가개에 들른참이다。

탑삭부리한참봉네 싸전가개야 쌀 외상을 달리고 혀짧은소리나 할려면몰리도 뭇은 세음을 졸리가무서워 길을 돌아서까지 다니지만 오늘은 위경 마음먹고 들른것이다。

초봉이는 내일모레면 서울로 간다고 모녀가들어서 옷을 새루 하네어쩌네、사뭇 서둘고잇다。그거야 가장이요 부친된사람의 위엄으로 가지못하게 막자면야 못할것은업다(……고 정주사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고저러고 하느니보다 혼처나어데 조혼자리가 선뜻 나서서 말이 오락가락하면 그것을 핑게삼어 서울도 가지못하게 하련과、무엇보다도 어서어서 혼인을햇스면 일이 두루 십상일듯시펏다。

그런데 요전 탑삭부리한참봉네 아낙이 그대지도 발을벗고 중매를 서겟다고 서둘럿스니 무슨기미가 잇서도잇슬것이다。

어데 오늘은 눈치나 좀 보이야지 이러케 엽량을하고 쓱 들러보앗더니 아니나달을가…。

김씨는 가개에 잇다가 반겨하면서 나제 자기가 정주사네 집에까지 넘어가서 유씨만맛나 위선 대강이애기는햇고 그래도 미흡한것가터 이러케 정주사가 지내가기를 직히고 잇섯노라고 말을 하고는 이어 호담을 내놋는것이다。

정주사는 처음 ××은행 군산지점의 고래수라는 말을듯고 몃칠전 미두장아페서 봉변을할때에 그사람이 내달어 말려주든일이 생각나서 혼자 얼굴이 붉을랴고햇다。그러나 한편 사람의 인연이라는것이 이러한것이로구나 하는 신기한 생각도 업지아니햇다。

『글세 그이가요!』

김씨는 다시 참새가티 재잘거리기 시작한다。

『…근 일년짜이나 우리집에서 기식을 하구잇지만 두구보면 볼수록 얌전해요。요새 젊은이하구는 그런이가 잇기두쉽잔흘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두 과히사람이상스럽지는안흘것가튼군요』

정주사는 태수의 차악 눈이 앵기는 모습을 다시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만족을느겻다。

『그이말두 그래요。정아무개씨라구 그러니까 아 그러냐구 그어룬가트면 인사는 못잇주어서두 가끔 뵈어서 안면은 익히 안다구』

『그러나저러나 거 근지(根地)가어떤지』

『원이 서울사람이래요。파붓데 외아들인데 양반이구。그래서 지금두 재갸네본대에서는 소슬대문을 달구 안픠그루 종을부리면서 이에 여바라ㅣ하구 그러대요。재산두 벼천이나하구。그래서 그이가 월급밧는것은 담배갑시나하지 다달이 재갸네본대에서 돈올라다쓰군해요 그건 나두 가끔 각지편지(各持書留)가 오는것을보니까요。그러구 은행에다니는것두、인제 크게 무엇을 시작할려구 일배우기겸 소일삼어서 그리는거래요。이런이애기야 그이가 어데 재강입으루 하나요? 그이 친구한테 들은말이지』

『나이는 몃치라지요? 스물륙칠세 되지요?』

『스물여섯、그러니까 갑진 을사、을사생(乙巳生)이지요。재작년봄에 경성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구、서울 그은행에 들어갓다가 작년에 일루 전근이돼서 내려왓대요』

『너에!』

정주사는 잠간 딴생각을 하느라고 건숭으로 대답을한다。

대체 그만큼 기구가조흔 집안의 자제로 어찌 스물여섯이나 먹두룩 장가를 가지아니햇나? 혹시 요새 젊은아이들이 항용 그러듯이 제집에 구식본처를 두어두고、또는 이혼을하고、다시 신식결혼을 할려고하는것이나 아닌가?

이러한 미심스러운 생각이낫든것이다。그래서 어떠케 그것을 좀 파고 물어보고도시펏다。

그러나 그는 얼핏 그만두엇다。그는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기를 저어하여 물어보기가 겁이낫든것이다。

그래서 그는 짐짓

『아무려믄 그러키야 할라구 그럴리야 업겟지……』

이러케 쏫어더펴바렷다。그래도 마음 한귀텅이에서 찜찜해하니까 그는 다시 다둑어렷다。

『아무리 허물업는 중매에비한테기로니 그러뭘을 까집어노코 못는법이야 잇나?……。차차달리 [illegible]언젠』